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How to Link ESG in the Building Sector to Promote Green Buildings

박성남 Park, Sungham
문보람 Moon, Boram
최가윤 Choi, Gayoon

(a u r i

일반연구보고서 2023-1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How to Link ESG in the Building Sector to Promote Green Buildings

지은이 박성남, 문보람, 최가운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등록일 '08. 02. 18.)
인쇄 2023년 12월 26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437-6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연구책임

박성남 연구위원

Ⅰ 연구진

문보람 연구원

최가운 연구원

Ⅰ 외부 연구진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소우 연구원

Ⅰ 연구 보조원

충북대학교 이예진 석사과정

뉴캐슬대학교 성민기 박사과정

Ⅰ 연구 심의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 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 연구위원

한아도시연구소 민범식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창우 본부장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진철 교수

Ⅰ 연구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연희 과장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태오 국장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허재성 사무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남궁명식 주무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심홍석 부장

ERM Korea 김주윤 이사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

삼성물산 정은영 그룹장

GS 건설 조계원 팀장

포스코이앤씨 전훈태 실장

한일엠이씨 엄태윤 이사

동부건설 조정현 차장

삼우CM건축 김재문 이사

성균관대학교 서동현 관리팀 과장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한밭대학교 조진균 교수

경기대학교 최영진 교수

건국대학교 임현우 교수

차례 CONTENTS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 2 |
|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
|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질문 | 8 |
| 1) 연구 목적 | 8 |
| 2) 연구 주요내용 | 8 |
| 3) 연구의 방법 | 9 |
| 4) 연구 질문 | 12 |
| 제2장 녹색건축 활동의 ESG 연계 현안 및 진단 | 15 |
|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건축 활동 | 16 |
| 2. ESG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 19 |
| 1)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 19 |
| 2) K-ESG 가이드라인 | 20 |
| 3) 타 분야의 ESG 가이드라인 | 22 |
| 3. ESG 경영 추진 기업 지원 | 24 |
| 4. 건설업 종사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 26 |
| 1) 건설업 종사자 인식 조사 | 26 |
| 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 33 |
| 5. 소결 | 37 |
| 제3장 해외 ESG 정책 및 기업 활동 사례 | 39 |
| 1. 국외 선진국의 ESG 정책 사례 | 40 |
| 1) 국제사회의 ESG 정책 경향 | 40 |
| 2) 주요 시장별 ESG 정책 현황 | 47 |
| 2. 주요 기업 ESG 전략 사례 | 58 |
| 1)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 58 |
| 2) 넷플릭스(Netflix) | 63 |

차례 CONTENTS

| | |
|---------------------------------------|---------|
| 3. ESG 경영을 녹색건축 활동과 연계한 해외사례 | 68 |
| 1) 녹색건축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ESG 경영 연계 사례 | 68 |
| 2) 친환경 녹색건축 공급망(건축자재 또는 건축물 생산) 기업 사례 | 76 |
| 3) 녹색대출 지원 금융기업 | 80 |
| 4) 싱가포르 저에너지 건축 유도 정책 사례 | 81 |
| 5) 프랑스의 녹색사업 지원 녹색채권 사례 | 84 |
| 4. 소결 | 86 |
| 제4장 건물 부문 ESG 연계 촉진 방안 | 89 |
| 1. 개요 | 90 |
| 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 92 |
| 3.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 94 |
| 4.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 96 |
| 5.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 98 |
| 6.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 98 |
| 7.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 100 |
| 8. 소결 | 100 |
| 제5장 결론 | 103 |
| 1. 연구의 요약 | 104 |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05 |
| 참고문헌 | 107 |
| Summary | 111 |
| 부록 | 115 |
| 1. 민간건설산업 ESG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 116 |

표차례 LIST OF TABLES

| | |
|--|----|
| [표 1-1] 2021년 ESG 등급 부여 현황 | 3 |
| [표 1-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
| [표 1-3] 주요 조사항목 | 10 |
| [표 1-4] 설문지 구성 | 10 |
| [표 1-5]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14인) | 12 |
| [표 1-6] 연구의 흐름도 | 13 |
| [표 2-1]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판단 세부내용 | 16 |
| [표 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도시·건물 부문 녹색경제활동 | 17 |
| [표 2-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해설 | 18 |
| [표 2-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해설 | 18 |
| [표 2-5] 주요 글로벌 ESG 평가기관 및 평가방식(예시) | 19 |
| [표 2-6]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문항 중 녹색건축 관련 범주 | 20 |
| [표 2-7]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E) 항목 비교 | 21 |
| [표 2-8] ESG 관련 타 부처 가이드라인 제공 현황 | 22 |
| [표 2-9]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ESG 컨설팅 및 예산지원사업 | 22 |
| [표 3-1] 유럽연합 지속가능재무실천계획의 목표와 전략 | 48 |
| [표 3-2] 2021년 지역별 평균 정보 고시 비율 | 49 |
| [표 3-3] AI 검토에서 분류된 산업별 사업체 수(2021년) | 52 |
| [표 3-4] 산업별 평균 정보 공개 비율(2021년) | 53 |
| [표 3-5] AI 검토에서 분류된 산업별 사업체 수(2021년) | 54 |
| [표 3-6] 2021년 미국 SEC가 제안한 기후변화 공시 규정 방향 | 56 |
| [표 3-7] SEC가 제안한 등록 펀드 및 투자자문사의 ESG 공시 사항 | 57 |
| [표 3-8] 거버넌스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요 성과(2022년) | 62 |
| [표 3-9] Netflix의 2021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단위: MTCO ₂ e) | 63 |
| [표 3-10] Netflix의 2021년 탄소 크레딧 구매 포트폴리오 | 66 |
| [표 3-11] Netflix의 다원주의 정책에 따른 사내 인력 현황(단위: %) | 67 |
| [표 3-12] 월마트의 매장 재생에너지원 이용 목표와 추이 | 70 |
| [표 3-1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Planet 21-Acting here 세부 계획 | 72 |
| [표 3-14]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Accro그룹의 호텔 | 73 |

표차례

LIST OF TABLES

| | |
|--|----|
| [표 3-15] AZEK의 FULL-CIRCLE ESG 하이라이트 | 79 |
| [표 3-16] 건축환경변환 연면적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ITM 요구사항 | 83 |
| [표 3-17] 프랑스 녹색국채의 적격 녹색지출 분류체계 | 84 |
| [표 4-1] 녹색건축과 ESG 연계방안 도출의 연결성 | 90 |
| [표 4-2] 녹색건축 ESG 연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연관성 | 91 |
| [표 4-3] 녹색건축 ESG 연계방안에 대한 ESG 부문 연계성 | 91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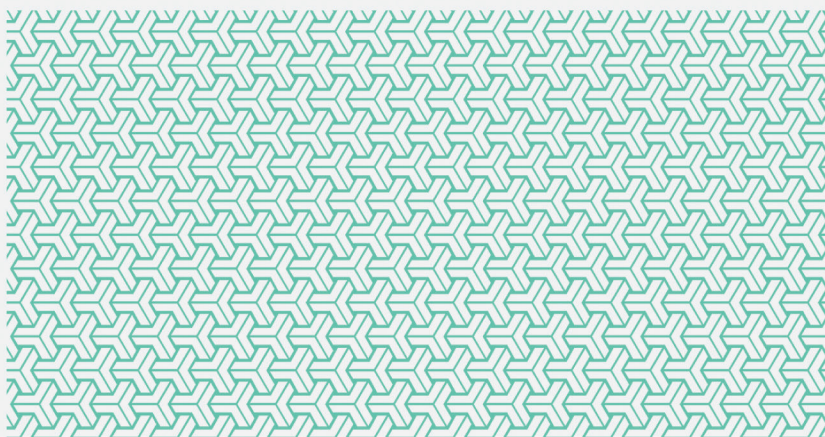
| | |
|---|----|
| [그림 1-1] 녹색건물 부문 ESG 연계시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 3 |
| [그림 1-2] 최근 5년간 ESG 관련 주요 키워드 변화 | 4 |
| [그림 1-3] 워드 클라우드 결과 | 5 |
| [그림 1-4] 녹색건물 부문 ESG 연계 필요성 | 8 |
| [그림 1-5]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과정 | 9 |
| [그림 2-1] MSCI 기준 ESG 영역 | 20 |
| [그림 2-2]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규제 및 산업별 체크포인트 | 23 |
| [그림 2-3] 설문 응답자의 주 업종 | 26 |
| [그림 2-4]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추진 상황 | 27 |
| [그림 2-5] ESG 경영에 대해 알게 된 계기 | 27 |
| [그림 2-6]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 28 |
| [그림 2-7]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 | 28 |
| [그림 2-8]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 29 |
| [그림 2-9]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 | 29 |
| [그림 2-10] 현재 국내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추진 수준 | 30 |
| [그림 2-11] 국내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어려움 | 31 |
| [그림 2-12] ESG 분야별 중요도 | 31 |
| [그림 2-13] ESG 경영을 위해 귀사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 | 32 |
| [그림 2-14] 향후 건설 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 32 |
| [그림 3-1] 주요 선진국 지속가능 투자 및 자산 추이 | 40 |
| [그림 3-2] 주요 선진국 지속가능 투자 전략 | 41 |
| [그림 3-3] GRI 표준체계 | 44 |
| [그림 3-4] GRI 충족요건 개요 | 44 |
| [그림 3-5] 석유 및 가스 부문 표준과 SDGs의 관련성 | 45 |
| [그림 3-6]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보고 예시 | 46 |
| [그림 3-7] 무역 진입 장벽으로서 유럽연합의 ESG 규제 강화 | 50 |
| [그림 3-8] 아스트라제네카의 탄소제로 로드맵 | 59 |
| [그림 3-9] 아스트라제네카의 2021 사회기여 부문 성과 | 60 |
| [그림 3-10] 아스트라제네카의 헬스케어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성과 | 61 |
| [그림 3-11]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업 가치 전략 | 61 |
| [그림 3-12] 넷플릭스 Net Zero 전략의 기본틀 | 64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 | |
|--|-----|
| [그림 3-13] 넷플릭스 LA 사무소 | 65 |
| [그림 3-14] Magic School of Green Technologies(작), The Namasia Mincyuan Elementary School(우) | 68 |
| [그림 3-15] 월마트 캘리포니아 매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 69 |
| [그림 3-16] 월마트 매사추세츠 매장: 주차장에 풍력 터빈으로 매장 에너지 공급 | 70 |
| [그림 3-17] Accor 그룹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 71 |
| [그림 3-18] Planet 21 프로그램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4가지 등급과 이에 포함되는 호텔 추이 | 72 |
| [그림 3-19] Hilton Garden Inn(Faroe Islands) | 74 |
| [그림 3-20] A Waldorf Astoria Hotel | 75 |
| [그림 3-21] 세키스이하우스의 CO2 배출량 감소 진행률 | 76 |
| [그림 3-22] 세키스이하우스 ZEH 주택 증가추이 | 77 |
| [그림 3-23] 세키스이하우스의 타일을 기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 77 |
| [그림 3-24] 리브릭스 사업 절차도 | 78 |
| [그림 3-25]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발행 원칙 | 80 |
| [그림 3-26] 향상된 ITM을 위한 3가지 핵심 영역 | 82 |
| [그림 3-27] 프랑스 녹색국채 부문별 지출 배분 | 85 |
| [그림 3-28] 2023년 건설산업 ESG 관련 주요 이슈 | 88 |
| [그림 4-1] 녹색건축 부문 ESG 연계 방향 | 91 |
| [그림 4-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의 활용 구상 | 92 |
| [그림 4-3]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추진에 대한 의견 | 93 |
| [그림 4-4] 녹색건축 활동을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취득 활동까지 확대할 시 참여의사 | 93 |
| [그림 4-5] 녹색건축 활동 관련 ESG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 | 95 |
| [그림 4-6] 정부 차원의 ESG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97 |
| [그림 4-7] ESG의 E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항목 데이터 활용 예시 | 99 |
| [그림 4-8] 정부와 ESG 선도기업과의 MOU 추진에 대한 의견 | 10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질문

1. 연구의 배경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도시·건물 분야에서의 녹색경제활동 제시

2021년 4월, 정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1년 후인 2022년 12월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 6개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녹색부문’의 67개 녹색경제활동과 ‘전환부문’의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¹⁾되어 있으며 총 74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등의 분야에서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으로 ‘라’ 항의 도시·건물 부문에서 4개의 경제활동을 제시하였다. 도시·건물 부문의 4개의 녹색경제활동은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운영”,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환경부 2021a,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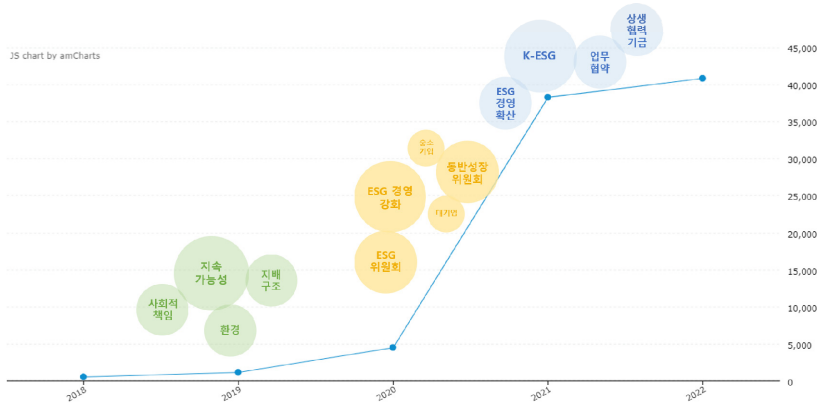
□ 민간 부문의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 정책의 시의성

건물 부문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며, 이 중 3분의 2는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발전의 배출량에 기인한다(박성남 외 2022, p.5).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녹색건축 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수요 확산을 촉진하며 신규 민간 수요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박성남 외 2022, p.41).

녹색 건축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그린리모델링 활동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함으로써 ESG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사회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출처: 환경부 2022, p.11)

수 있다.²⁾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국내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 기업 가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업무협약, 상생협력기금 등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2] 최근 5년간 ESG 관련 주요 키워드 변화

출처: 빅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뉴스검색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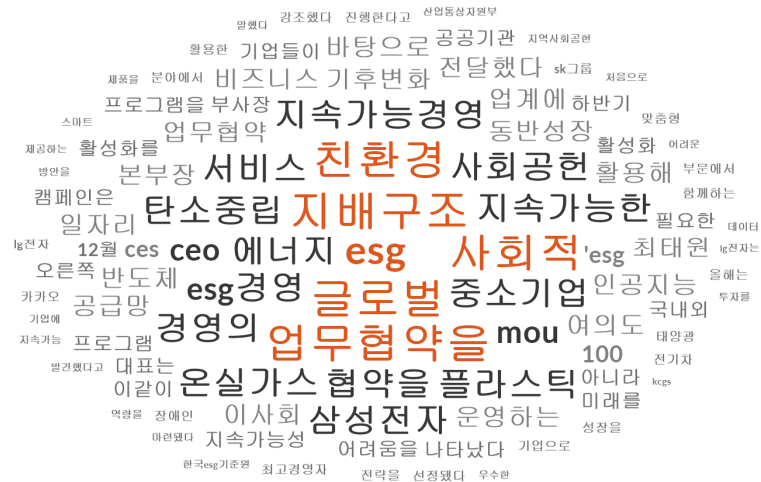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 필요성 및 수요 증가

- ESG 평가가 기업경영의 핵심지표로 떠오르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관심이 중요해졌으며 녹색경제활동 중 도시·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기사 제목 | 주요내용 | 출처 |
|---|--|---|
| ['E' 빠진 건설업] ESG 경영, 편식 지양해야 (21.03.21., 이코노믹리뷰) | 국내 건설업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주택산업의 경우 ESG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등이 부상하고 있다.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750 |
| [2022 기계설비 컨퍼런스] "기계설비, ESG 도입에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2.11.04., 기계설비신문) | 특히 최근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건설사를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교감도 늘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도 전했다. 그 배경으로는 ESG 평가가 기업경영의 핵심지표로 떠오른 점을 지목했다. | https://www.kmec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2 |
| 건물부문 탄소중립 GR성과 '팔목' (22.12.17., 칸(KHARN)) | "최근 각국형 그린뉴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서 그린리모델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종락) "ESG 활동 등 민간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민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 |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21109 |

2) ESG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5년간 ESG, 녹색분류체계 등과 관련된 뉴스기사를 분석하였다. 뉴스 기사는 "ESG"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12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한 워드 클라우드 및 키워드 간 네트워크 내용을 분석하였다(그림 1-3).

ESG 키워드를 중심으로 ‘친환경’, ‘지배구조’, ‘사회적’, ‘업무협약’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에너지’, ‘온실가스’ 등이 있다.



[그림 1-3] 워드 클라우드 결과

출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뉴스검색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녹색건축 활동 촉진을 위한 ESG 경영 기업과의 연계와 녹색건축 활동에 특화된 ESG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

ESG 경영수단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타 분야의 경우,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해 관련 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활발히 수립 중이다.

2022년 10월,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ESG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KOTRA에서는 2022년 12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 3월부터 해양수산 ESG 경영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녹색건축분야 ESG 경영 활성화와 함께 기업의 그린모델링 수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건물 부문이 가진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색건축 활동 촉진을 위한 ESG 경영 기업과의 연계와 녹색건축 활동에 특화된 ESG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주요 선행 연구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ESG와 녹색건축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ESG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선행 연구는 국내외 녹색분류체계를 평가하고, ESG 경영 평가가 기업의 활동 및 관련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임형석(2022)은 해외 주요 국가의 녹색분류체계 평가·분석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김호석(2021)은 환경(E) 요인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현석(2022)은 ESG 성과결과와 실제 기업의 에너지 소비 변화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녹색건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박성남 외(2022)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수진·이상운(2022)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종성 외(2022)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및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표 1-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ESG, 녹색분류 체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Taxonomy) 향후 과제 •연구자(년도): 임형석(2022)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각국의 녹색 분류체계 평가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고찰 •국내외 제도 검토 •사례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주요 국가의 녹색분류체계 평가 및 분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제시 |
|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ESG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년도): 김호석(2021)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환경적 행태 변화가 환경정책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경정책 개선 방향 및 국내 ESG 투자 발전 방향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동향 검토 •국내 현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E) 요인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적 성과 분석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ESG 관련 변화 전망 및 관련 정책 제언 |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녹색건축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ESG에 따른 환경성과평가가 기업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년도): 김현석(2022)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의 에너지 소비 변화 간 상관관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고찰 •국내외 제도 검토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중 환경요소와 관련된 성과평가가 기업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 에너지 소비 관련 환경정책 수립의 시사점 도출 |
|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박성남 외(2022)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및 제도 검토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FGI 및 설문조사 실시 •비용편익분석 및 활성화 영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현황 및 한계점 검토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도출 •비용편익분석 실시 및 대안별 활성화 영향 분석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기별 세부 실행 방안 및 제도 개선 제안 |
|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연구자(년도): 우수진·이상윤(2022)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에너지 설계컨설팅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및 에너지절감효과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전조사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 설계컨설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
|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전략 수립 •연구자(년도): 이종성 외(2022)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통계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제도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축주택 그린리모델링 기술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분석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 검토 및 운영방안 제시 |
| 본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간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건설업 종사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인터뷰 •언론기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활동의 ESG 연계 현황 및 진단 •해외 ESG 정책 및 국내외 기업 활동 사례 •ESG와 녹색건축 연계 촉진 방안 제시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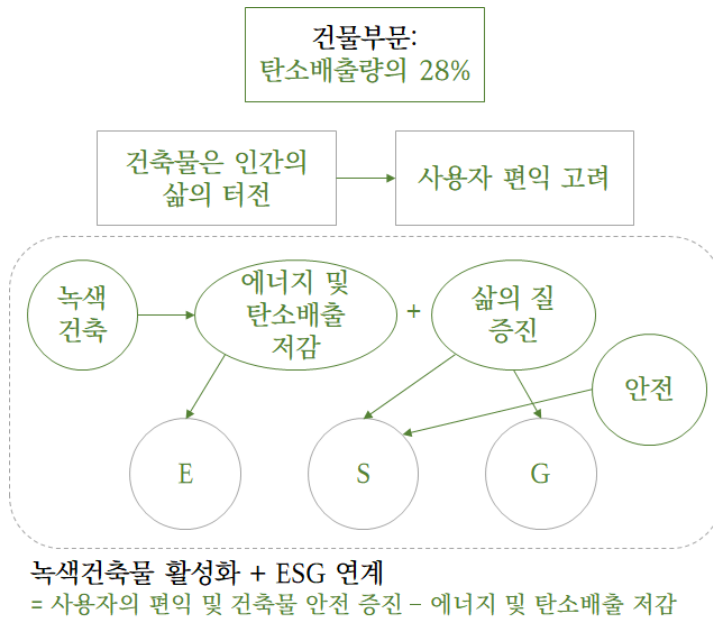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ESG가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나타난 기업의 행태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ESG 경영수단으로서 녹색건축 활동 수요가 증대되었음에도 이들의 구체적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정책지원 방향 및 제도개선을 제안함으로써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질문

1) 연구 목적

2022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에 녹색건축 관련 활동이 포함되면서 민간 부문의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4] 녹색건축물 부문 ESG 연계 필요성

출처: 연구진 작성.

2) 연구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녹색건축 활동의 ESG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현안을 검토한다. 국외의 ESG 정책 추진 내용과 ESG를 녹색건축과 연계한 기업 활동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건설 부문 민간 수요 현황 파악을 위해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 연계를 위해 필요한 현안·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ESG와 녹색건축 연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지원 방향과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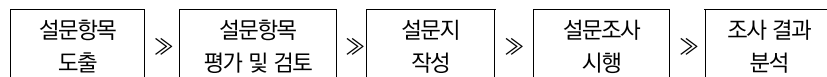
① 개요

- 문헌조사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건축활동 문헌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 ESG 관련 정책 및 해외 사례 조사
- 정책실무협의회 정기 개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인 국토안전관리원과의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분석 및 정책 수요 현황 파악
- 건설업 분야 종사자 설문조사 실시
 - 건설 산업 내 ESG 경영 현안과 실태 파악을 위한 건설 산업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162인) 실시
-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시
 - 국내 기업(기관)의 ESG 추진 상황
 - 국내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과 ESG와의 관련성
 - ESG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녹색건축 활동 참여 유인방안

② 건설 산업 종사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 목적 및 대상

이에 본 장에서는 ESG 경영에 대해 건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해도와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1-5]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 주요 조사항목 및 설문지 구성

주요 조사 항목은 총 5개 영역으로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배경 질문’과 건설 산업에서의 ‘ESG 경영 중요성 및 인지도’, ‘ESG 경영 필요성’, 현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구성된다.

[표 1-3] 주요 조사항목

| 구분 | 조사내용 |
|-----------------------|---|
| 1. 배경 질문 | - 응답자 기본 정보 파악 : 주 업종, 본사 소재지, 기업 규모 등 |
| 2.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인지도 | -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정도 파악 : ESG 경영 인식 정도 및 추진 상황, 분야별 중요도 등 |
| 3. ESG 경영의 필요성 | -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 필요성 및 이유 파악 : ESG 경영 필요성 및 이유 |
| 4.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어려움 | - 현 건설 산업에서의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어려움 파악 :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추진 수준, 추진 시 어려움 등 |
| 5.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 향후 건설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정부차원의 ESG 경영 지원 필요사항 등 |

출처: 연구진 작성.

앞에서의 주요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배경 질문(3개),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인지도(5개), ESG 경영의 필요성(3개),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어려움(2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7개) 총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1-4] 설문지 구성

| 구분 | - | 내용 |
|-------|------------------|---|
| 배경 질문 | 주 업종 | 종합건설업 도급순위 10위 이내 /50위 이내/50위~100위 |
| | | 건설용역업 건축설계/구조설계 /감리/친환경컨설팅 |
| | | 건자재산업 자재 생산 및 판매 |
| | | 공공기관 건설 정책/ 공공공사 시행 |
| | | 연구개발 대학, 연구소 등 |
| | 본사 소재지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세종, 충북,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경남/울산, 부산, 제주 |
| | 기업 규모 (종업원 수) | 10인 이하 |
| | | 10인 이상~30인 이하 |
| | | 30인 이상~50인 이하 |
| | | 50인 이상~100인 이하 |

| | | |
|-----------------------|---|---|
| | | 100인 이상 |
|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인지도 | - | ESG 경영에 대한 귀사의 인식 정도 및 추진 상황 |
| | | ESG 경영을 알게 된 계기 |
| | | ESG 경영에 대한 귀사의 인지도 |
| | | ESG 분야별 중요성 및 향후 변화 |
| ESG 경영의 필요성 | - | 건설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 |
| | | ESG 경영이 필요 또는 불필요한 이유 |
|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어려움 | - | 현재 국내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추진 수준 |
| | | 국내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어려움 |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 | ESG 경영을 위해 귀사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 |
| | | 향후 건설 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 |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동 관련 ESG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 그린리모델링 인정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 |
| | | 정부 차원의 ESG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 | | 정부와 ESG 선도기업과의 MOU 추진에 대한 의견 |
| | | |

출처: 연구진 작성.

□ 설문 방법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15일~6월 25일까지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선정은 국내 건설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 국내 종합건설사 종사자, 건설 용역업(친환경 컨설팅, 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계, 감리 등), 전자재 생산 및 판매업, 공공기관, 건설정책, 공공공사 시행, 연구소, 대학 등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각 기관의 중급관리자(과장, 부장, 임원, 대표 등) 16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전문가 심층 인터뷰

ESG 경영 컨설팅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각 분야에서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ESG 컨설팅 기업 전문가, ESG 경영 추진 기업 전문가, 녹색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로 나누어 총 14인을 대상으로 2023년 7월에 수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 항목〉

1. (본인이 속한) 국내 기업(기관)의 ESG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2. ESG 경영이 큰 흐름이긴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3. 국내 기업(기관)의 ESG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ZEB 인증 제, 녹색건축인증제, 그린리모델링 등)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그러면, ESG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기관)들이 녹색건축 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 1-5]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1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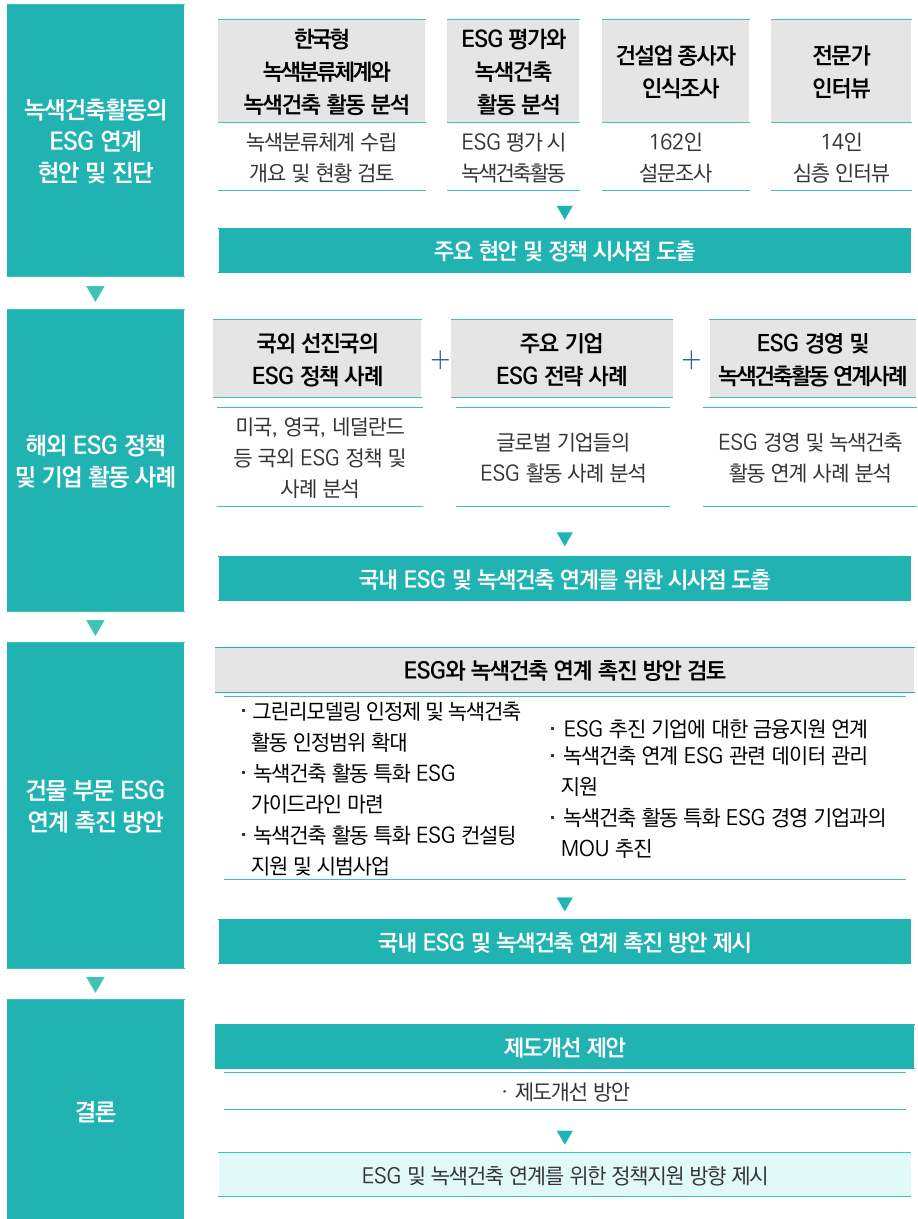
| 분류 | 성명 | 소속 | 직위 |
|---------------------|-----|--------------------------|-----|
| ESG 컨설팅 기업 전문가 | 심홍석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ESG 그룹 | 부장 |
| | 김주윤 | ERM Korea | 이사 |
| | 신지웅 | EAN 테크놀로지 | 대표 |
| ESG 경영 추진 기업 전문가 | 정은영 | 삼성물산 | 그룹장 |
| | 조계원 | GS 건설 | 팀장 |
| | 전훈태 | 포스코이앤씨 | 실장 |
| | 엄태윤 | 한일엠이씨 | 이사 |
| | 조정현 | 동부건설 | 차장 |
| | 김재문 | 삼우CM건축 | 이사 |
| | 서동현 | 성균관대 관리팀 | 과장 |
| 녹색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 송두삼 | 성균관대 | 교수 |
| | 조진균 | 한밭대 | 교수 |
| | 최영진 | 경기대 | 교수 |
| | 임현우 | 건국대 | 교수 |

출처: 연구진 작성.

4) 연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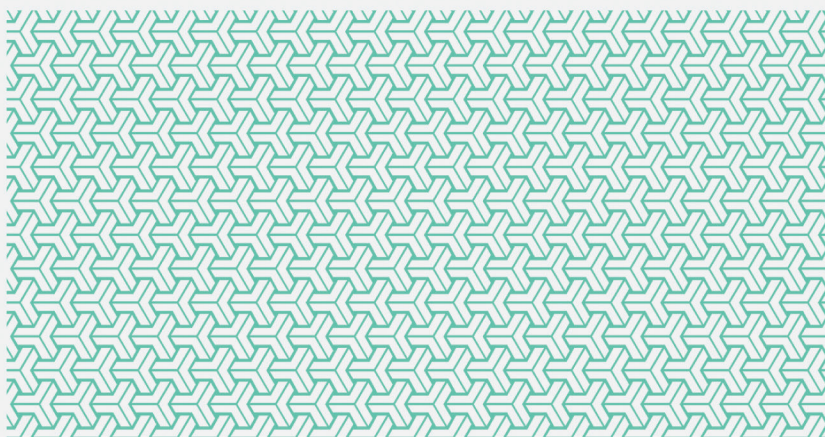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녹색건축 활동과 ESG가 연계되기 위한 현안은 무엇인가?
2.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 연계를 위한 건설 부문의 민간 수요는 어떠한가?
3.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방안은 무엇인가?

[표 1-6] 연구의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녹색건축 활동의 ESG 연계 현안 및 진단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건축 활동
2. ESG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3. ESG 경영 추진 기업 지원
4. 건설업 종사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5. 소결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건축 활동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수립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주요 목적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 녹색기술 등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환경부 2021a, p.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4. 13.]

이후 환경부는 20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1) 6대 환경목표³⁾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3) 인권·노동·안전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환경부 2021a, p.11). 활동기준에 해당하면서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녹색활동이 적용된다.

[표 2-1]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판단 세부내용

| 항목 | 내용 |
|------|--|
| 활동기준 |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인정기준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배제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DNSH : Do No Significant Harm) |
| 보호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출처: 환경부(2021b).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12월 30일자 보도자료. p.4.

3)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의미한다(환경부 2021a, p.1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64개 녹색경제활동 중 녹색건축에 대한 항목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개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경제 활동의 ‘라’ 항의 도시·건물 부문에서는 4개의 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이 포함되었다(환경부 2021a, p.12).

K-택소노미 녹색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에서는 녹색건축활동에 대하여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취득만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은 매우 기준이 엄격하여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본인증 취득건수는 단 11건(전체 본인증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박성남 외 2022, p.28).

또한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 활동의 인정기준은 그린리모델링 등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는 설비인 ‘단열,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설치하거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데이터 계측 등이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구축·설치 활동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 DB의 관리나 설비의 설치와도 연계된다.

[표 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도시·건물 부문 녹색경제활동

| 부문 | 활동 | 내용 |
|-------------|--|--|
| 라. 도시·건물 |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운영 |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
| |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인정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 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 |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인프라 구축·운영 |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4) 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출처: 환경부(2021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p.25.

[표 2-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해설

| ① 활동기준 | | |
|---|---|--------------------------|
| (1) 건물 신축, (2)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 | <input type="checkbox"/> |
| ② 인정기준 | | |
| 온실가스 감축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는가(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 <input type="checkbox"/> |
| ③ 배제기준 | | |
| 기후변화 적응 | ‘배제기준-기후변화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생물다양성 보전 |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④ 보호기준 |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 <input type="checkbox"/> |
| 출처: 환경부(20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한국환경산업연구원. p.148. | | |

[표 2-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해설

| ① 활동기준 | | |
|---|--|--------------------------|
| 주거용, 상업용 등(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input type="checkbox"/> |
| ② 인정기준 | | |
| 온실가스 감축 | 가. (1)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설비(예: 단열,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를 설치하는 활동인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BEMS, HEMS 등) 등을 구축·설치하는 활동인가? | <input type="checkbox"/> |
| |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input type="checkbox"/> |
| 출처: 환경부(20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한국환경산업연구원. p.153. | | |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인터뷰〉

“ESG는 기업이나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기업이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Environmental)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가 ESG와 연계되어 이러한 활동들이 ESG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ESG 평가로 인해 녹색건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연구진 작성.

2. ESG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1)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와 같은 글로벌 금융정보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ESG경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회사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관련 투자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모두 대응하며 각 기업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옥수 2020, p.98).

【표 2-5】 주요 글로벌 ESG 평가기관 및 평가방식(예시)

| 평가기관 | 평가방식 |
|---|--|
| DJSI CSA (S&P Global) | 1995년 설립된 평가기관으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ESG 설문 제출 평가방식을 통해 자본 시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2,500개 대상으로 산업별 최고 기업 선정 발표) |
| MSCI ESG Rating (Morgan Stanley) | 산업별 ESG 평가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시된 ESG Data를 기반으로 평가,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의 이슈 종합하여 MSCI 편입 기업 선정 및 평가지표 차등 적용 |
| FTSE Russell's ESG Ratings (FTSE Russell) | 기업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ESG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자체 평가결과와 기업의 설명 자료를 수렴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시장에 제공(지배구조, 환경 사회 분야의 14개 항목, 300개 평가지표를 통해 ESG 종합평가)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p.16.

일례로 MSCI는 전 세계 약 8,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ESG의 세부 영역을 다음과 같이 10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 환경(E):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폐기물, 환경적 기회
- 사회(S): 인적 자원, 제조물 책임, 이해관계자 대응, 사회적 기회
- 지배구조(G): 기업 지배구조, 기업 행태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
|-----------------------------|------------------------|----------------------|
| Climate change | Human capital | Corporate governance |
| Natural resources | Product liability | Corporate behavior |
| Pollution & waste | Stakeholder opposition | |
| Environmental opportunities | Social opportunities | |

[그림 2-1] MSCI 기준 ESG 영역

출처: 이옥수(2020). 한국형 녹색금융과 ESG 금융의 재정의. Deloitte Insights.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호. p.99.

2) K-ESG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p.16). 공시 의무 등 ESG 규율이 강화되고 기업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ESG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준비 및 평가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가이드라인(시행 2021.12.01)」(상장 대기업 활용)을 발표하였다(ESG 공급망 지원센터 n.d.).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P) 5개 문항, 환경(E) 17개 문항(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사회(S) 22개 문항, 지배구조(G)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문항 중 녹색건축 관련 범주

| 영역 | 범주 | 분류번호 | 진단 항목 |
|-------------------|------|-------|---------------------------|
| 환경(E) (17개 문항) | 온실가스 | E-3-1 |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 |
| | | E-3-2 |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
| | | E-3-3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 | 에너지 | E-4-1 | 에너지 사용량 |
| | | E-4-2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 | ⋮ | ⋮ |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p.26.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2022.12)」을 발표하였다(ESG 공급망 지원센터 n.d.).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2023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을 분석하면, 자원 범주에서는 ‘재생 원부자재 비율’이 삭제되었고 ‘폐제품 및 재활용’이 심화진단으로 추가되었다. 온실가스 범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이 삭제되었다. 에너지 범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삭제되었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심화진단으로 추가되었다. 유해물질 범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삭제되었고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및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가 기초진단으로 추가되었다. 대기오염 범주에서는 ‘대기 및 소음 관리’가 기초진단으로 추가되었다. 수질오염 범주에서는 ‘재사용 용수 비율’이 삭제되었고 ‘용수 및 폐수 관리’가 기초진단으로 추가되었다. 법/규제 범주의 ‘환경 법/규제 위반’ 및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은 삭제되었다.

[표 2-7]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E) 항목 비교

| 범주 | 진단항목 | |
|------|---|--|
| |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심화진단 항목 포함) |
| 자원 |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 원부자재 사용량(기초)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심화) |
|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Scope1&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Scope1&2)(기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심화) |
| 에너지 |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에너지 사용량(기초)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심화) |
| 유해물질 |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폐기물 배출량(기초)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기초)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기초) |
| 대기오염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심화) 대기 및 소음 관리(기초) |
| 수질오염 | 용수 사용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재사용 용수 비율 | 용수 사용량(심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심화) 용수 및 폐수 관리(기초) |
| 법/규제 |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 - |

출처: 연구진 작성.

〈조정현 (동부건설 차장) 인터뷰〉

“정부에서 21년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분야 항목을 살펴보면 재생 원부자재의 사용, 온실가스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친환경 인증자재의 사용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중립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분야와 지배구조 분야도 기업의 녹색건축 활동이 활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 ‘S’, ‘G’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녹색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3) 타 분야의 ESG 가이드라인

타 분야의 경우 ESG 대응 상황을 보면 2023년 1월 환경부에서 「2023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에서는 ESG 컨설팅 지원 사업과 함께 자금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표 2-8] ESG 관련 타 부처 가이드라인 제공 현황

| 부처(기관) | 주요 내용 |
|---|---|
| 환경부 「2023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23.1.) | - ESG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 자금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사업 소개 |
| 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22.12.) | - ESG 관련 주요 규제 -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산업별 체크포인트 - ESG 관련 정보(지원사업, ESG 관련 인증 등)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ESG 전략 수립 연구」('23.3~'23.11) | - 해양수산분야 ESG 대응현황 분석, 기업 경영 지원 방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전략 추진기반 조성 |

출처: 환경부(2023); KOTRA(2022); 해양수산부(202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2-9]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ESG 컨설팅 및 예산지원사업

| 구분 | 사업명 | 주요 내용 |
|------------------|--|--|
| 컨 설팅 |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23년 22.5억원) | •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공급망 중소·중견기업 • 환경경영 수준 진단, 환경배출 현황 진단·목표 수립 컨설팅 진행 등 |
| | 탄소중립 컨설팅('23년 4.8억원) |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방안 도출 등 |
| 예 산 지 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23년 909억원) | • 중소·중견기업(최대 10억, 중소 60%, 중견 50%) •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종합 환경개선 지원 |
|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23년 135억원) | • (수요) 모든 기업 가능 /(공급) 환경친화기술 보유 업체(중소 70%, 중견 50%) • 수요기업의 환경개선에 혁신 녹색신기술 적용시 기술 공급 기업에비용 보조 |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3년 1,313억원) |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30~70%) /(상생프로그램) 할당대상업체 중 민간기업(대기업 가능)(50%) /(연료전환) 할당대상업체 중 집단에너지 사업자(중소·중견)(50%)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 지원 |
| |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지원('23년 15억원) | • 목표관리업체 중 중소·중견기업(50%)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비용 지원 |
| | 친환경설비투자(융자)('23년 1,000억원) | •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억) • 국내외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설비 시설·운영 비용 |
|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23년 242.5억원) * 융자규모 3.5조원 | •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대기업 가능) * 취급은행 : 산업은행, 신한은행 •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설비 시설 비용 |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융자)('23년 1,000억원) | • 중소·중견기업(최소 1천만원~최대 100억) • 사업장의 녹색전환 자금 시설 비용 |

출처: 환경부(2022).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p.2.

KOTRA는 2022년 12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 본 핸드북은 ESG 관련 주요 규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산업별 체크포인트, ESG 관련 정보(지원사업, ESG 관련 인증 등)를 제공한다.

기업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ESG 관련 Top 12 규제

최근 ESG 관련 규제의 흐름은 크게 (1) 통상 연계 제재, (2) 공급망 실사 의무, (3) 기업정보 공개 의무, (4) 제품정보 공개 의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Part 1에서는 우리 기업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ESG 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산업별 체크포인트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중점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4개의 주요 산업(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의류)을 선정하였습니다. Part 2에서는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고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별 관리항목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봅니다.

| 연번 | 범주 | 세부분류 | 관리항목 | 조직 |
|----|----------|-------------|----------------------------------|----|
| 1 | 환경 | 환경경영 목표 | 환경경영 추진체계 (정책, 인력, 부서) 마련 여부 | 환경 |
| 2 | | 에어치/온실가스 | 에어치/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관리 | 사회 |
| 3 | | 에어치/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계획 및 목표 수립 | 사회 |
| 4 | | 수자원 | 수자원 사용량 절감에 대한 계획 및 목표 수립 | 사회 |
| 5 | | 수자원 | 폐수 처리 방식의 적절성 | 사회 |
| 6 | | 폐기물 | 폐기물 배출량의 법적 요구 수준 충족 | 사회 |
| 7 | | 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사회 |
| 8 | | 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사회 |
| 9 | | 유해물질 | 유해물질 배출량과 폐기물 처리 방식의 법적 요구 수준 충족 | 사회 |
| 10 | 인권/노동 | 인권경영 목표 | 인권 경영 추진체계 (정책, 인력, 부서) 마련 여부 | 환경 |
| 11 | | 고용관계 | 공정한 대우/보상 여부 | 환경 |
| 12 | | 고용관계 | 적법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 사회 |
| 13 | | 결사의 자유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보장 | 사회 |
| 14 | | 강제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사회 |
| 15 | | 아동노동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사회 |
| 16 | |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차별/성별 인종, 국적, 신체의 자유 등) 및 괴롭힘 금지 | 사회 |
| 17 | | 산업안전 목표 | 안전보건 추진체계 (정책, 인력, 부서) 마련 여부 | 사회 |
| 18 | | 안전보건 | 안전보건 기법/인력 | 사회 |
| 19 | 산업 안전/보건 | 위험지점 식별 | 위험지점을 식별/관리하며 위험/위험도에 대한 완화조치 시행 | 사회 |
| 20 | | 위험지점 식별 | 위험지점을 식별/관리하며 위험/위험도에 대한 완화조치 시행 | 사회 |
| 21 | | 위험지점 식별 | 위험지점을 식별/관리하며 위험/위험도에 대한 완화조치 시행 | 사회 |
| 22 | | 위험지점 식별 | 위험지점을 식별/관리하며 위험/위험도에 대한 완화조치 시행 | 사회 |
| 23 | | 위험지점 식별 | 위험지점을 식별/관리하며 위험/위험도에 대한 완화조치 시행 | 사회 |

[그림 2-2]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규제 및 산업별 체크포인트

출처: KOTRA(2022). 중소기업들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KOTRA 통상협력팀. 22-130호. p.2.

2023년 3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ESG 전략 수립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 ESG 대응현황 분석, 해양수산 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 해양수산분야 ESG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 ESG 전략 추진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가 발간한 안내서의 경우, 환경(E) 부문의 전반적인 지원사업 소개에 국한되어 있어 녹색건축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KOTRA가 발간한 핸드북의 경우, 중소기업 산업별 특성에 따른 ESG 규제와 관리항목에만 국한되어 녹색건축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ESG 경영 추진 기업 지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ESG 공시 의무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며, 30년 이후에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KAI)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기업들의 선제적인 공시체계 확립 등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ESG 공시에 대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의 중요성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확산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87%가 협력사 ESG 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평가기준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일례로 2022년 건설기업 ESG 등급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위 이내 기업들의 평균 등급은 A~B+ 구간(3.67, 등급 구간을 5점 척도로 환산 시), 11~50위 기업들은 B+~B 구간(3.18), 50위권 밖의 기업들은 C~D 구간(2.36)으로 건설기업 규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p.23).

중소기업은 ESG 경영 추진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3년에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 사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p.29)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환경부 ESG 가이드라인의 컨설팅 및 예산지원 사업 제시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녹색건축 특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컨설팅 및 예산지원 시범 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다.

ESG 경영은 자금조달과도 연계가 있는데, 특히 녹색건축 활동 부분은 녹색채권

과의 연계성이 높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16일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품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며, 녹색채권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고 4대 핵심요소(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의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환경부 외 2022, p.12).

이는 발행자 측면에서 녹색채권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도구이므로 발행기업은 녹색채권 발행 과정을 통한 추진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ESG경영 체계의 점진 및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SG 경영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MOU를 통한 기업 간 공동 대응 노력이 증추세에 있다. ESG가 기업 가치평가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 중임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건설-한국씨티은행(22년 3월), 코트라-KB국민은행(22년 3월), 신한은행-LX하우시스(21년 7월) 등 다수의 ESG 경영 업무협약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정부와 기업 간 대표적으로 체결되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례⁴⁾는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그램⁵⁾에만 국한되어 물리적인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과는 무관하여 녹색건축 부문 활동의 강화를 위한 MOU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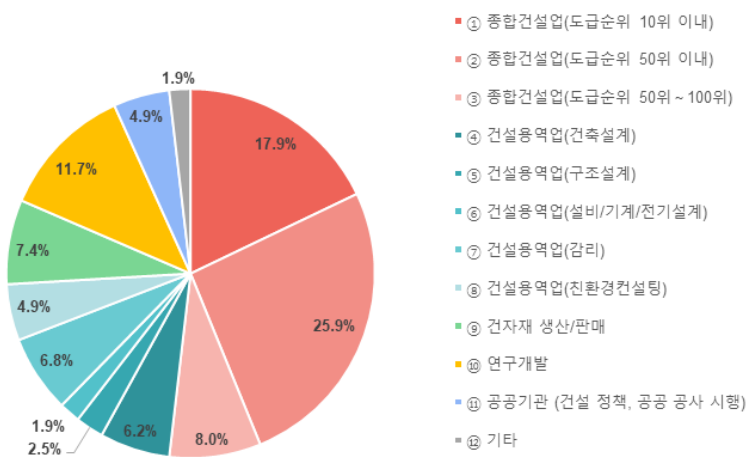
-
- 4) 유통·프랜차이즈 기업(14개사, 53천여개 매장), 협회단체(8개 기관, 1,200여개 회원사), 시민단체(6개, 362개 회원단체), 유관기관(2개)이 참여하였으며,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 제과점, 영화관, 은행 등을 대상
- 5)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기사용량 10% 절감 시 한전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에너지쉽표 제도가 있다.

4. 건설업 종사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건설업 종사자 인식 조사

□ 설문 응답자 정보(배경 질문)

총 16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종합건설업 종사자가 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34.5%가 도급순위 10위 이내, 50%가 도급순위 50위 이내, 나머지 15.5%는 50위~100위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설계, 구조설계, 친환경건설링 등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전체 약 22.2%였으며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 종사자는 전체 약 11.7%를 차지했다. 그밖에 전자재 생산 및 판매 종사자가 7.4%, 공공기관 종사자는 4.9%, 기타 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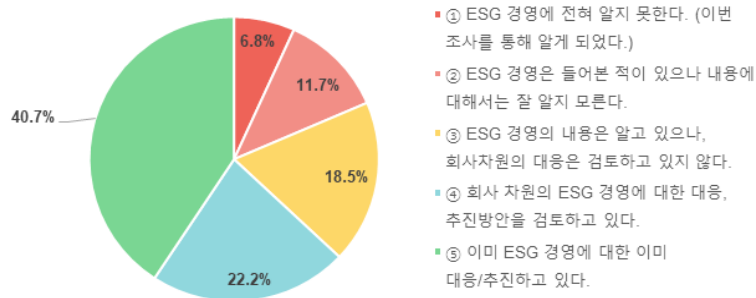
[그림 2-3] 설문 응답자의 주 업종

출처: 연구진 작성.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 중 64.2%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권이 20.4%로 전체 응답자의 84.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전체 설문 응답자의 75.3%가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SG 경영 인식 정도 및 추진 상황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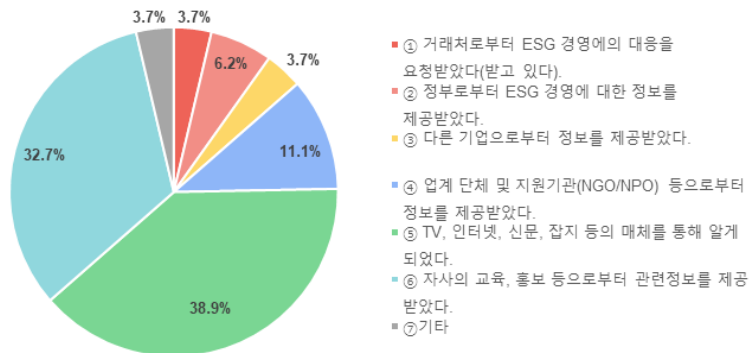
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인식 정도, 추진 상황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응답자의 약 40.7%가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이미 ESG 경영에 대해 대응 및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2.2%는 회사차원에서 ESG 경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8.5%는 본인은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회사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8.5%는 ESG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2-4]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추진 상황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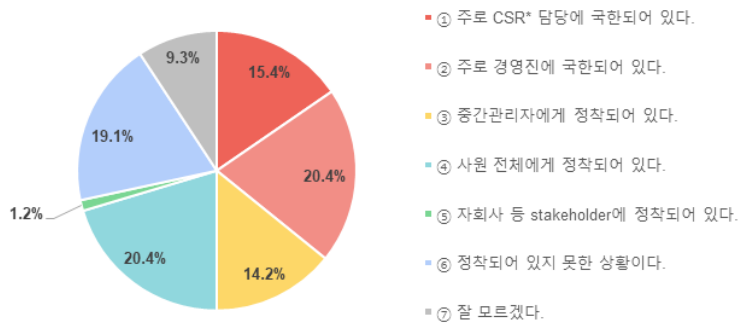
ESG 경영에 관해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약 38.9%가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ESG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32.7%는 자사의 교육, 홍보 등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1%는 업계 단체 및 지원기관(NGO/NPO)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는 거래처나 정부,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5] ESG 경영에 대해 알게 된 계기

출처: 연구진 작성.

ESG 경영에 관한 기업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의 약 20.4%는 ESG 경영이 주로 경영진에 국한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사원 전체에 정착되어 있다고 답변한 비율도 역시 20.4%로 같으며, 사내 CSR담당자(15.4%), 중간관리자(14.2%) 순으로 나타났다. 19.1%는 사내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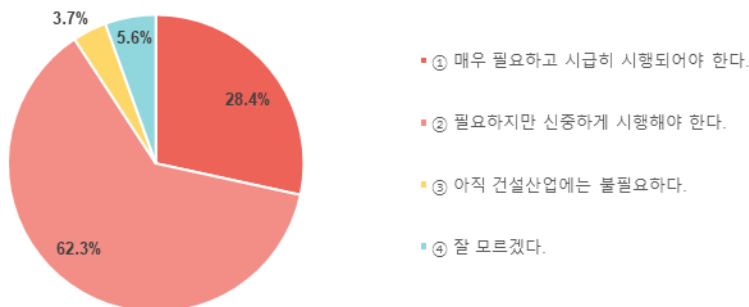


[그림 2-6]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출처: 연구진 작성.

□ ESG 경영의 필요성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인 약 62.3%가 ESG 경영은 필요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체의 28.4%가 ESG 경영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ESG 경영이 아직 건설 산업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3.7%)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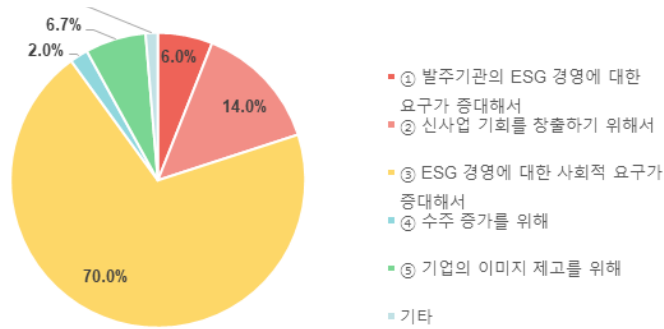


[그림 2-7]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출처: 연구진 작성.

앞에서 건설 산업의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90.8%), 그 이유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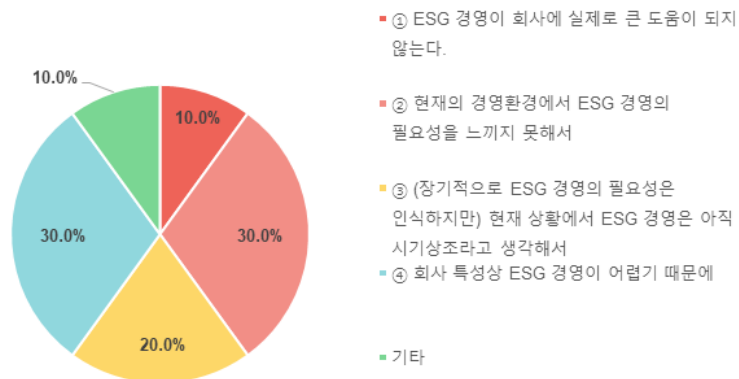
대다수인 약 70.0%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서(14.0%)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밖에도 발주기관의 요구 증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수주 증가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림 2-8]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9.3%)한 경우, 설문 응답자의 30%가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회사 특성상 ESG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30%로 같았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20%는 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ESG 경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10% 정도가 ESG 경영이 회사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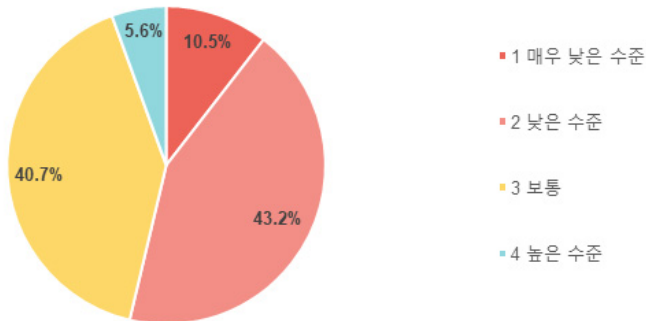


[그림 2-9]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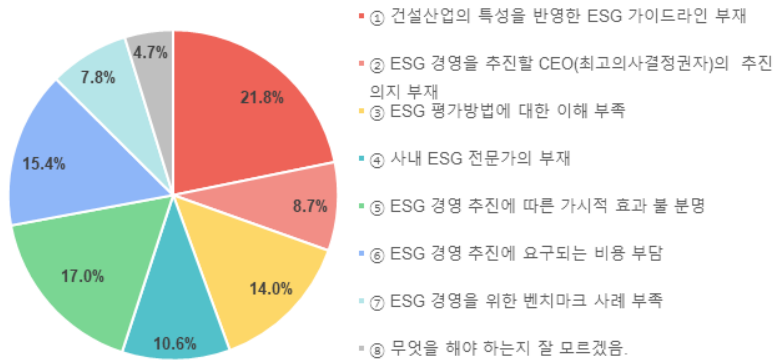
건설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내 건설업체 규모별로 ESG 경영 추진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의 43.2%가 국내 건설 산업의 ESG 경영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0.7%가 보통, 10.5%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ESG 경영 추진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5.6% 정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 2-10] 현재 국내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추진 수준

출처: 연구진 작성.

현재 국내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을 추진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의 부재(21.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17.0%가 ESG 경영 추진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응답하였으며, ESG 경영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15.4%), ESG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14.0%), 사내 ESG 전문가의 부재(10.6%) 순으로 ESG 경영 추진 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벤치마크 사례의 부족(7.8%),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4.7%) 등의 응답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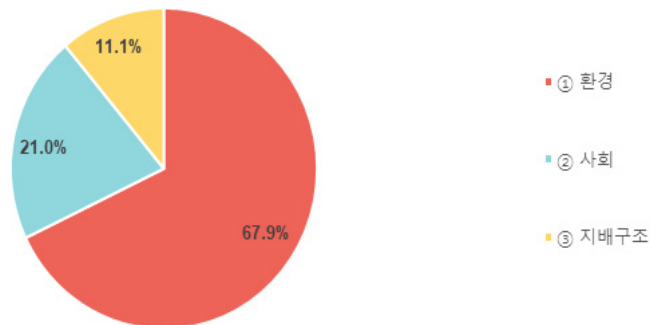


[그림 2-11] 국내 건설 산업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어려움

출처: 연구진 작성.

□ ESG 평가지표 중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ESG 평가지표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중 현재 ESG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67.9%)가 환경(E)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았으며 사회(21.0%), 지배구조(11.1%)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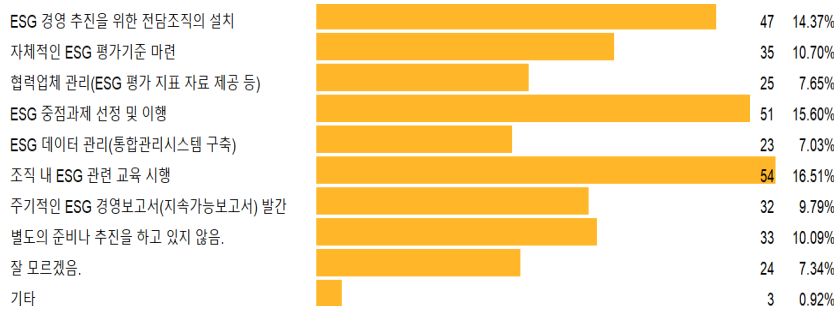
[그림 2-12] ESG 분야별 중요도

출처: 연구진 작성.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설문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의 가장 많은 16.5%가 조직 내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15.6%가 ESG 중점과제의 선정 및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약 14.4%가 회사 내 ESG 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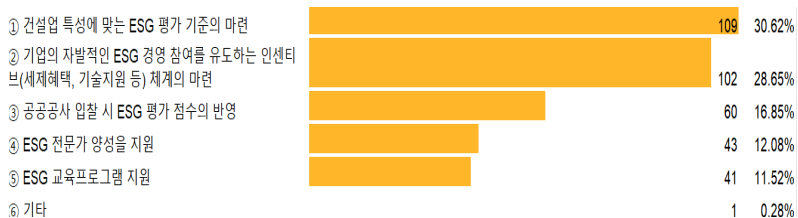
으며, 10.7%는 자체적인 ESG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0.1%는 별도의 준비나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9.8%는 주기적인 ESG 경영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그밖에 협력업체 관리(7.6%), 잘 모르겠음(7.6%), ESG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3] ESG 경영을 위해 귀사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건설 산업 특성에 맞는 ESG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요(28.7%), 정부 추진 공공사업 입찰에 ESG 평가점수 반영 필요(16.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도 12.2%는 정부에서 ESG 전문가 양성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1.5%는 정부차원의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향후 건설 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출처: 연구진 작성.

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요약

Q: (본인이 속한) 국내 기업(기관)의 ESG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김재문 (삼우CM건축 이사) 인터뷰〉

“삼우씨엠은 ▲업계 최초 4개의 국제표준 ISO 인증 보유 ▲친환경 스마트 건설 활성화 ▲건설 현장 안전문화 정착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통한 윤리경영 실천 등 ESG 자체 매뉴얼을 추진 중이며, 본사 및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삼우씨엠은 부패방지·안전보건·환경·품질 경영시스템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업계 최초 4개의 국제표준 ISO 인증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건축물 전 과정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전문조직 구축 및 자체 매뉴얼을 활용, 전 현장의 안전문화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노사위원회로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전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또한 성금 후원, 건설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우리사주제 도입·컴플라이언스팀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정현 (동부건설 차장) 인터뷰〉

“당 사의 ESG 추진 현황은 초기 단계입니다. 2021년 ESG TFT팀이 구축되어 홈페이지에 ESG 관련 자료를 등재하였고, 2022년 ESG CFT팀을 만들어 ESG 환경지표를 단위 현장에서 수집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전훈태 (포스코이엔씨 실장) 인터뷰〉

“당사는 ESG전담조직 및 ESG RM Process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최초 환경·사회 통합형 ESG 채권을 발행 하였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Tool을 개발하였다. 또한, CEO협의체(기업시민카운슬), 임원협의체(기후변화/인권소위원회), 실무그룹(탄소중립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2021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2년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CDP A- Leadership Grade(건설업 최고등급)를 획득하였다.”

〈정은영 (삼성물산 그룹장) 인터뷰〉

“본사는 ESG 경영이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SG 항목지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공사는 주로 E(환경)의 시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 시공 중 사용되는 1차에너지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의 건물 운영 중 탄소 감축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ESG경영지수를 컨설팅을 통해 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의 ESG 경영 활동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ESG 컨설팅사의 전문가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양한 제도, 탄소국경세(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ESG 경영 추진의 수준은 주로 기업경영 공시 수준의 ESG 경영보고서 공시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Green Washing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국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적인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고 강조하였다. ESG 추진 기업 및 녹색건축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국내 업종에 부합되는 평가 가이드라인의 작성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Q: ESG 경영이 큰 흐름이긴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장) 인터뷰〉

“ESG 경영이 단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성과를 알리는 홍보용 수단에서, 투자자 관점의 필수적 ESG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관점에서 당장 2025년 ESG 의무공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한국의 ESG 의무 공시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 등은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높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산업이 핵심인 국내 산업 여건에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지웅 (이에이엔테크놀로지 대표) 인터뷰〉

“ESG 경영 추진을 하다보면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KPI를 설정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ESG 경영 중 ‘E’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직접/간접 구분),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직접/간접 구분, scope1,2,3), 사용한 모든 원재료의 양, 모든 재활용의 양 등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데이터로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은 전담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별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비용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을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계원 (GS건설 팀장) 인터뷰〉

“미국, 유럽에서 수많은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 및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국내 ESG 가이드라인 및 규제 정립이 필요합니다.”

〈임현우 (건국대학교 교수) 인터뷰〉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참조할만한 좋은 선례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모두 ESG를 외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지속가능경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ESG를 위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함이 부족해 보인다.”

출처: 연구진 작성.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ESG 경영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회사규모, 업종별로 ESG 추진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ESG 경영의 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녹색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ESG 경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국내 ESG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ZEB 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 그린리모델링 등)에 대해, ESG 컨설팅 전문가들은 정부 추진

방향은 매우 타당하나 이러한 녹색건축 활동이 ESG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의 작성이 조속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ESG 경영 추진 기업 전문가, 녹색건축 전문가들도 녹색건축 활동이 ESG 평가에 반영되어야 녹색건축 활동이 더욱 실효적으로 국내 시장에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Q: 국내 기업(기관)의 ESG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ZEB 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 그린리모델링 등)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인터뷰〉

“ESG는 기업이나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기업이나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environmental)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가 ESG와 연계되어 이러한 활동들이 ESG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면 오히려 ESG 평가로 인해 녹색건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문 (삼우CM건축 이사) 인터뷰〉

“다국적 기업인, 애플, 아디다스, 월드뱅크 등은 자사의 경영지침에 따라 LEED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임대 및 입주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국적 부동산 기업이 건물 매입해 개발하여 매각하는 경우, LEED 인증을 획득하여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LEED 인증 건축물로 자사 건물의 개발, 임대하는 경우, ESG 평가 시 Environment 부문에 가점 요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LEED 인증과 유사한 한국의 ZEB 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 그린리모델링 등은 개념은 유사하나, ESG 평가 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현 (동부건설 차장) 인터뷰〉

“정부에서 21년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분야 항목을 살펴보면 재생 원부자재의 사용, 온실가스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친환경 인증자재의 사용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중립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분야와 지배구조 분야도 기업의 녹색건축 활동이 활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 ‘S’, ‘G’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녹색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계원 (GS건설 팀장) 인터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은 기업의 ESG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기업으로서는 탄소저감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며, 녹색건축 활동은 탄소저감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바닥난방시스템 개선, 아파트 공용부 폐열이용 제습살균 시스템 등 다양한 Passive 빌딩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BIPV(Buin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조물 최적 설계를 통한 자재 손실 최소화 기술인 지하구조물 PC(Pre-cast) 적용, 중공(Hollow Core)부재를 활용한 콘크리트/거푸집 폐기물 최소화 기술 등을 개발 중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ESG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기관)들이 녹색건축 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 차원의 녹색건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또는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의견으로는 만일 녹색건축 활동이 ESG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에서 녹색건축 활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 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내 녹색건축 활동과 ESG 평가와 연동시킬 수 있는 평가체계,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Q: ESG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기관)들이 녹색건축 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책 지원 포함)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장) 인터뷰>

“많은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녹색건축 활동이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는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TCFD, CDP, SBTi 등)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국의 정책 및 제도가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분야는 아주 복잡한 가치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주윤 (ERM KOREA 이사) 인터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건물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율을 보면 약 90%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기축건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대부분 사회에서의 기득권 계층인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축건물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건물성능평가나 그린리모델링 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그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다면 큰 저항 없이 ESG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훈태 (포스코이앤씨 실장) 인터뷰>

“친환경 건축물이 시장에서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주나 시행자 입장에서 건축물의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면 초기 건축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건축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으로 발주처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발적으로 LEED 인증 등을 받기도 한다.”

<임현우 (건국대학교 교수) 인터뷰>

“1차적으로 녹색건축 적용에 따른 탄소저감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툴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툴에 의한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세제 혜택,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처럼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에 기반을 둔 실제 탄소 저감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적용되어 또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건물 리트로핏, 커미셔닝 비용 지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출처: 연구진 작성.

5. 소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투자를 가이드하는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녹색건축에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녹색건축물 리모델링이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된 것은 건축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 달성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절감 측면이나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녹색건축 활동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는가가 인정 기준이며, 비용이나 기준의 엄격성을 고려 시 인정 범위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DB의 관리나 설비의 설치와도 연계되는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과 병행하여 녹색건축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BlackRock이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MSCI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필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부가 정부 차원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환경부, KOTRA, 해양수산부에서는 후속 가이드라인 및 전략들을 설정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 주도의 특화 가이드라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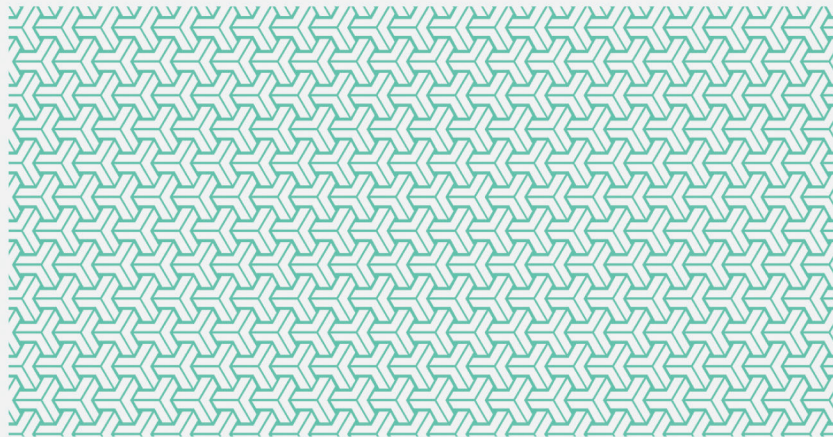
ESG 경영 추진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ESG 추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자금조달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경영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기업 간 공동 대응 노력을 전제로 한 MOU를 통해 협력적 ESG 추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건설 부문 종사자의 ESG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사점을 요약하면 ESG에 대응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홍보나 교육이 ESG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ESG 경영에 관한 인식이 중간관리자 이상(주로 경영진, CSR 담당에 국한)에 정착되어 있다고 답하여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은 아직은 중간관리자 이상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 산업 종사자는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 따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ESG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그 수준은 낮다고 인식한 답변이 많아 국내의 건설 산업 ESG 경영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설 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은 건설업 특성에 맞는 ESG 평가 기준 마련과 인센티브로 나타났다.

전문가 14인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하면 ESG 경영의 추진에는 모두 공감하며, 정부 추진의 녹색건축 활동이 건설 산업의 ESG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 작성 등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해외 ESG 정책 및 기업 활동 사례



1. 국외 선진국의 ESG 정책 사례
2. 주요 기업 ESG 전략 사례
3. ESG 경영을 녹색건축 활동과 연계한 해외사례
4. 소결

1. 국외 선진국의 ESG 정책 사례

1) 국제사회의 ESG 정책 경향

① ESG의 지속가능개발 대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의 지속가능 투자 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약 22조 8천억 달러 규모에서 35조 3천억 달러 규모로 150% 이상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총자산 대비 지속가능 관련 자산 비율이 2016년 27.9%, 2018년 33.4%, 2020년에는 35.9%까지 증가하였다(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21, p.9).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1)는 2020년 유럽 내 ESG 관련 자산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규제에 대한 정의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자산들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 또한 엄격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 Snapshot of global sustainable investing assets, 2016-2018-2020 (USD billions)

| REGION | 2016 | 2018 | 2020 |
|-----------------------------|---------------|---------------|---------------|
| Europe* | 12,040 | 14,075 | 12,017 |
| United States | 8,723 | 11,995 | 17,081 |
| Canada | 1,086 | 1,699 | 2,423 |
| Australasia* | 516 | 734 | 906 |
| Japan | 474 | 2,180 | 2,874 |
| Total (USD billions) | 22,839 | 30,683 | 35,3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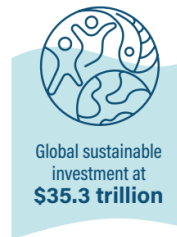


FIGURE 2 Snapshot of global assets under management 2016-2018-2020 (USD billions)

| REGIONS | 2016 | 2018 | 2020 |
|---|--------|-------------|-------------|
| Total AUM of regions | 81,948 | 91,828 | 98,416 |
| Total sustainable investments only AUM | 22,872 | 30,683 | 35,301 |
| % Sustainable investments | 27.9% | 33.4% | 35.9% |
| Increase of % sustainable investments (compared to prior period) | | 5.5% | 2.5% |



[그림 3-1] 주요 선진국 지속가능 투자 및 자산 추이

출처: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p.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ESG가 지속가능한개발의 핵심 의제 중 하나에서, 지속가능성 자체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에서 ESG와 관련한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2월 발표한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지속가능투자”가 “ESG 투자” 개념과 혼재되거나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2021)는 ESG와 관련된 기준들의 강화는 지속될 것을 내다보면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는 ESG가 지속가능성을 대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설명해준다. 2020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지속가능 투자 자산을 전략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ESG 통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총 35조 3천억 달러의 지속가능 투자 자산 중 ESG 통합과 관련된 투자자산은 25조 2천억 달러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21, p.10).

FIGURE 6 Sustainable investing assets by strategy & regio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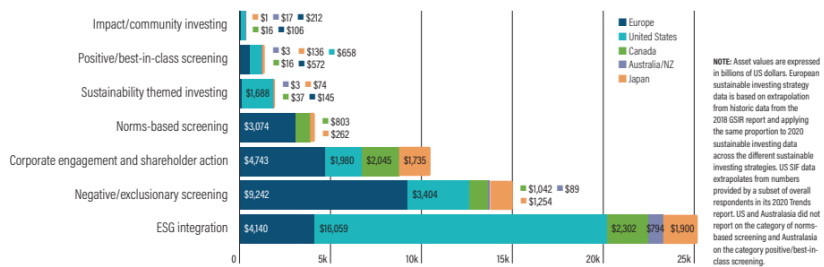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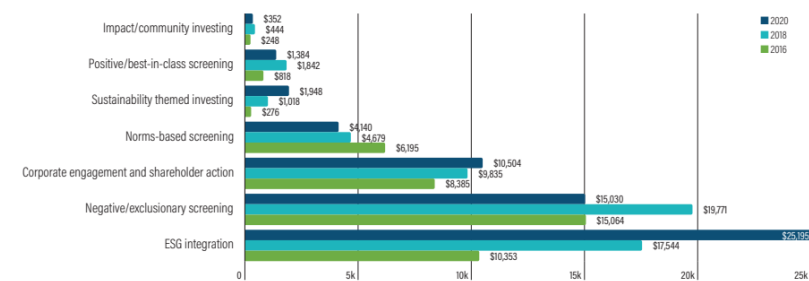


FIGURE 7 Global growth of sustainable investing strategies 2016-2020



[그림 3-2] 주요 선진국 지속가능 투자 전략

출처: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p.11.

② 공시를 통한 ESG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국제사회에서 ESG 관련 정책의 쟁점은 보편화된 표준을 마련하고 각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즉 공시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대표적인 공시 표준으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이 있으나, 객관화된 평가를 위한 단일화 된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박지원, 2022, p.5). 따라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이 확정되었고, 글로벌 표준 최종안이 2023년 6월 발표되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ESG 정보 공시에 선도적인 유럽의 경우, 자체 표준을 마련해 왔으며, ISSB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2022년 4월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ESG 정보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의 초안을 공표한 바 있다(ESG 경제 2022). ESRS는 ISSB가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것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 지속가능재무실천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통해 제시된 지속가능재무공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핵심 조항을 2021년 3월에 마련하였다(EUROSIF, 2021). SFDR는 지속 가능한 투자 상품의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 규정이다.

한편, ESG 정보 공시에 관련하여 가장 선도적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발간하는 핸드북 및 EU 법률,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을 통해 런던 증권거래소 주요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공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공경신 2020, pp.1-2). 2020년 영국 정부는 ‘녹색 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재무공시TF(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의 의무 보고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Kotra해외시장뉴스 2021).

③ ESG 공시를 위한 국제표준 사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정책적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ESG 관련 정보와 표준은 필수적이다. 국제사회 또는 국가 단위에서 ESG 전략, 가이드라인, 규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ISSB와 ESRS 중심으로 ESG 표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표준들 모두 최종안이 현재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 대표적 ESG 관련 공시 표준으로 국내에 소개된 GRI 표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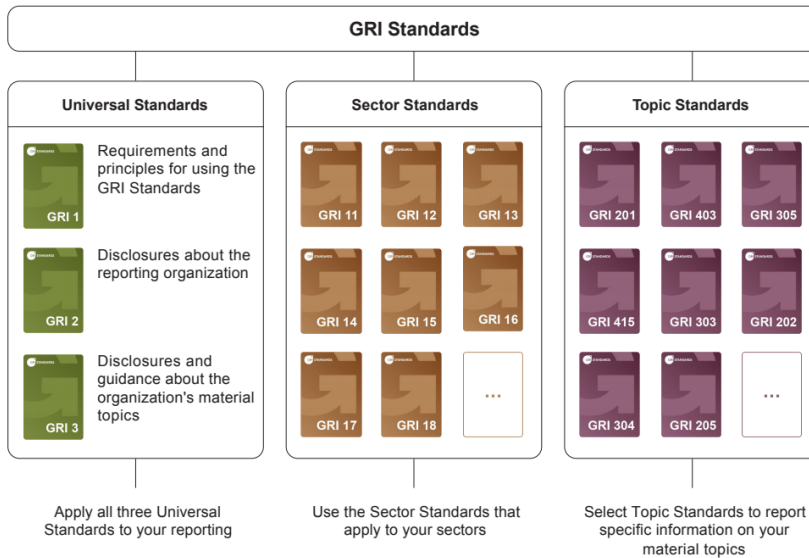
GRI는 글로벌 사회에서 공통 표준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이다. GRI는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광물, 화석연료, 농수산업, 경제활동, 반 부정부패, 세금, 에너지 등 표준들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현재 기준). GRI가 제공하는 국제 표준들(standards)은 국제화된 산업, 경제, 사회 환경에서 공통된 지표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GRI는 기업들이 GRI 표준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세분화된 표준에 대한 정보를 GRI로 리포팅(공시)하고 GRI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세계 상위 250개 기업(G250) 중 78%, 58개국 상위 100개 사업체(N100)의 68%가 GRI표준을 사용하고 있다(GRI 2022).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람(인권, 고용 등을 포함)과 관련된 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에(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3, p.7),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GRI 지표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과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경제활동, 반 부정부패, 다양성과 공평한 기회, 반 차별, 근로환경 등 직간접적으로 ESG 경영과 관련하여 공시에 사용되는 표준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나 국제사회가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 GRI 표준 체계 및 요건

GRI 표준은 개괄적 정보에서 세부적 정보로 3단계로 구분된 표준을 제시한다. 이 세 단계의 표준은 보편적 표준(Universal Standards), 부문별 표준(Sector Standards), 주제별 표준(Topic Standards)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편적 표준은 모든 조직에서 사용되는 표준으로 3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지침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GRI 1(Foundation)은 지속가능성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핵심개념과 요구사항 및 리포트 원칙으로 명시한다.



[그림 3-3] GRI 표준체계

출처: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9.

| | |
|----------------|--|
| Requirement 1: | Apply the reporting principles |
| Requirement 2: | Report the disclosures in GRI 2: General Disclosures 2021 |
| Requirement 3: | Determine material topics |
| Requirement 4: | Report the disclosures in GRI 3: Material Topics 2021 |
| Requirement 5: | Report disclosures from the GRI Topic Standards for each material topic |
| Requirement 6: | Provide reasons for omission for disclosures and requirements that the organization cannot comply with |
| Requirement 7: | Publish a GRI content index |
| Requirement 8: | Provide a statement of use |
| Requirement 9: | Notify GRI |

[그림 3-4] GRI 충족요건 개요

출처: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14.

GRI 2(General Disclosures)는 기업 정보와 관련하여, 기업의 활동, 거버넌스 및 정책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GRI 3(Material Topics)는 프로세스, 주제 목록과 관리방법을 포함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한다. 부문별 표준은 주요 주제(Material Topic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제별 표준은 부문 내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리포팅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개괄적 정보(표준)부터 하위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GRI 표준은 기업들이 [그림 3-4]와 같이 9개 요건들 작성하여 GRI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부문별 표준

부문별 표준은 특정 부문의 기업 또는 기관들에 대한 것으로, 두 자리 숫자로(예: 11, 12) 표기된다. 부문별 표준은 해당 부문에 포함되는 행위들과 관련된 사업주체들을 정의하고, 주요 주제(material topics)가 UN이 적용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에서 어떠한 목표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제시한다.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Topic 11.1 GHG Emissions | | | | | | | | | | | | | | | | | |
| Topic 11.2 Climate adaptation, resilience, and transition | | | | | | | | | | | | | | | | | |
| Topic 11.3 Air emissions | | | | | | | | | | | | | | | | | |
| Topic 11.4 Biodiversity | | | | | | | | | | | | | | | | | |
| Topic 11.5 Waste | | | | | | | | | | | | | | | | | |
| Topic 11.6 Water and effluents | | | | | | | | | | | | | | | | | |
| Topic 11.7 Closure and rehabilitation | | | | | | | | | | | | | | | | | |
| Topic 11.8 Asset integrity and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 | | | | | | | | | | | | | | | | |
| Topic 11.9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 | | | | | | | | | | | | | | | |
| Topic 11.10 Employment practices | | | | | | | | | | | | | | | | | |
| Topic 11.11 Non-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 | | | | | | | | | | | | | | | | |
| Topic 11.12 Forced labor and modern slavery | | | | | | | | | | | | | | | | | |
| Topic 11.13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 | | | | | | | | | | | | | | | | |
| Topic 11.14 Economic impacts | | | | | | | | | | | | | | | | | |
| Topic 11.15 Local communities | | | | | | | | | | | | | | | | | |
| Topic 11.16 Land and resource rights | | | | | | | | | | | | | | | | | |
| Topic 11.17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 | | | | | | | | | | | | | | | |
| Topic 11.18 Conflict and security | | | | | | | | | | | | | | | | | |
| Topic 11.19 Anti-competitive behavior | | | | | | | | | | | | | | | | | |
| Topic 11.20 Anti-corruption | | | | | | | | | | | | | | | | | |
| Topic 11.21 Payments to governments | | | | | | | | | | | | | | | | | |
| Topic 11.22 Public policy | | | | | | | | | | | | | | | | | |

[그림 3-5] 석유 및 가스 부문 표준과 SDGs의 관련성

출처: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136.

기관 또는 기업들은 주요 주제를 결정할 때와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보고해야 할 정보를 결정할 때, 부문별 표준을 사용하게 된다. 주요 주제는 경제, 환경, 사회, 인권에 관련하여 기업이 미치는 가장 큰 영향들을 의미한다. 부문별 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그 영향력을 판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주요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업은 설명된 각각의 주제들을 검토하고 해당 주제가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 STANDARD | DISCLOSURE | SECTOR STANDARD REF. NO. |
|------------------------------------|--|--------------------------|
| Management of the topic | | |
| GRI 3: Material Topics 2021 | Disclosure 3-3 Management of material topics <i>Additional sector recommendation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cribe actions taken to manage flaring and venting and the effectiveness of actions taken. | 11.1.1 |
| Topic Standard disclosures | | |
| GRI 302: Energy 2016 | Disclosure 302-1 Energy consumption within the organization | 11.1.2 |
| | Disclosure 302-2 Energy consumption outside of the organization | 11.1.3 |
| | Disclosure 302-3 Energy intensity | 11.1.4 |
| GRI 305: Emissions 2016 | Disclosure 305-1 Direct (Scope 1) GHG emissions <i>Additional sector recommendation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port the percentage of gross direct (Scope 1) GHG emissions from CH₄. Report the breakdown of gross direct (Scope 1) GHG emissions by type of source (stationary combustion, process, fugitive).² | 11.1.5 |
| | Disclosure 305-2 Energy indirect (Scope 2) GHG emissions | 11.1.6 |
| | Disclosure 305-3 Other indirect (Scope 3) GHG emissions | 11.1.7 |
| | Disclosure 305-4 GHG emissions intensity | 11.1.8 |
| | | |

[그림 3-6]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보고 예시

출처: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139.

□ 주제별 표준

주제별 표준은 먼저 주제에 관련된 관리 방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topic management disclosures).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취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제 정보 공개(topic disclosures)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한 정보들은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술형 데이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중에는 신규 고용률과 이직률(Disclosure 401-1)과 정직원과 계약직 간의 차별(Disclosure 401-1)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3, p.159).⁶⁾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 표준(GRI 305: Emissions 2016)을 예로 살펴보면 GRI 주제별 표준이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 표준을 설정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6) 정직원과 계약직 간의 차별은 정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을 서술하도록 하여, 다소 우회적이면서도 보형, 헬스케어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있다. GRI가 배출 표준에 포함시키는 가스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오존파괴물질(ozone-depleting substances, ODS),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황산화물(sulfur oxides, SOx) 등이다. 이중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이 포함된다(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3, p.554).

그리고, GRI의 배출 표준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와 지속가능개발세계경제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가 개발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또는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회계 및 보고 기준(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또는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tandard)을 따르고 있는데,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규정한 'ISO 14064'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다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Scope 1,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2,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3으로 분류된다. 배출 표준은 이 세 가지 범주에 관련된 사항들과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ODS),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포함한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총 6가지의 세부 정보 공개 목록을 관리방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주요 시장별 ESG 정책 현황

① 유럽연합(EU)의 ESG 정책

□ 지속가능 재무 실천 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지속가능재무실천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p.2). 첫 번째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자본흐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18)은 EU의

2030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예산의 최소 20%를 직접적으로 40%를 간접적으로 연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위험관리에서의 지속가능 주류화로, 금융부문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환경과 기후 위험을 재무결정 과정에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또는 법적 위험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 목표는 투명성과 장기적 성장의 도모이다. 특히, 마지막 목표는 ESG 정보 공시와 관련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혁신적 기술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의 지속가능재무실천계획은 9가지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자본흐름 방향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통합된 분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위한 표준 및 정보 적시(label)’, ‘지속가능 사업 투자 촉진’,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등 4가지 실천전략을, 지속가능 주류화를 위해 ‘시장조사 및 신용등급에서 지속가능성(ESG) 통합 개선’,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 명확화’, ‘세부요건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 3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 위원회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규정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육성 및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표 3-1] 유럽연합 지속가능재무실천계획의 목표와 전략

| 목표 | 세부 전략 |
|------------------------|--------------------------------|
|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 전환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통합된 분류체계 구축 |
| |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위한 표준 및 정보 적시 |
| | 지속가능 사업 투자 촉진 |
| |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
| 위험관리에서 지속가능 주류화 | 시장조사 및 신용등급에서 지속가능성(ESG) 통합 개선 |
| |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 명확화 |
| | 세부요건 지속가능성 통합 |
|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 |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규정 강화 |
| |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육성 및 단기주의 완화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8).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European Commission. pp.2-10.

□ 유럽연합의 ESG 관련 정책의 구성

지속가능 재무 실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통상규제,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에서 나아가 공급망 실사 의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ESG 관련 규제들은 유럽연합 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을 촉진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ESG 정책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반증한다. 실제로 영국 TCFD(2022, p.16)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평균 정보 고시 비율은 유럽이 60%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면서 ESG를 통한 무역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다중 ESG 규제 프레임은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한 역외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어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목적을 수반한다.

[표 3-2] 2021년 지역별 평균 정보 고시 비율

| 지역 | 비율 |
|-----------|-----|
| 유럽 | 60% |
| 아시아 태평양 | 36% |
| 북미 | 29% |
| 중남미 | 28% |
| 중동 및 아프리카 | 25% |

출처: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2 Status Report. p.16. 연구진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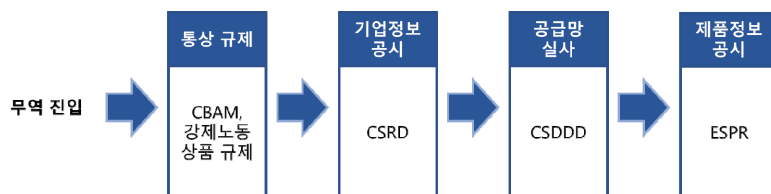
대표적 통상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강제노동 상품 규제(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가 있다. 2021년 입법된 CBAM은 2023년부터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무상할당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발효된다(마켓인사이트 2023).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시행 2022.09.14.)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강제노동 상품 규제법안도 모든 부문의 생산품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제노동이 연관될 경우, 수입, 수출을 포함한 통상이 금지함을 골자로 한다(유럽의회, 2022). 심지어, 강제노동 상품 규제법안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을 필요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18 지속가능 재무 실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기업 정보 공시 규제이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되는 CSRD는 약 5만개 기업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이에 따라, CSRD 대상 기업은 EFRAG가 개발한 ERS(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토대로 2025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연합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규제를 유럽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2월 지속가능한 기업실사 및 개정 지침을(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상정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기업의 개별 행위와 정보에서 확장된 형태의 ESG 평가를 시행할 것을 예고한다.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시행 2023.02.23.)에 따르면, CSDDD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비롯된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위험과 영향들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기업의 행위에서 파생되는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위험을 낮추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가치사슬에 연결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럽연합이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환경 정보 공시도 의무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3월 상정된 지속가능 환경디자인 지침은(ESPR: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업그레이드 및 수리 가능성,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재활용 물질 함량, 재생산 및 재활용 품질, 탄소 및 환경 발자국 감축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형태의 친환경 제품을 강조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22b). 이에 따라 개별 상품은 친환경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포장, 라벨,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ESG 규제가 발효되고 정착되는 2030년 전후로는 유럽시장에서 ESG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을 넘어, ESG 규제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퇴출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는 현재 ESG와 관련하여 유럽의 선도적 지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3-7] 무역 진입 장벽으로서 유럽연합의 ESG 규제 강화

출처: 연구진 작성.

② 영국의 ESG 정책

□ 선도적 ESG 정책 전개

영국은 가장 먼저 ESG 관련 대상 기업들의 범주를 규정하고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15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MSA: Modern Slavery Act 2015)」을 제정하여 노동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이 이렇게 빠르게 ESG 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도 있겠지만, 금융산업 및 첨단산업이 영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21, p.234), 총 부가가치(GVA)에서 금융 및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며, 제조업 부문에서도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제조업 및 창조문화산업이 경쟁력이 높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업체들이 여전히 런던에 있으며, 런던은 은행, 통화거래, 보험, 증권 등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21, p.258).

따라서 영국은 최근 금융권 및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SG 관련 이슈에 적극적이며, 브렉시트 이후 EU에게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도 채 되지 않는 농업과 제조업에서는 이미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였기 때문에, 노동 인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for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영국 정부는 2022년 1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2022년 4월 6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보고에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y Strategy 2022, p.9). 영국 사업 에너지 산업부가 공개한 지침에(Mandatory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by publicly quoted companies, large private companies and LLPs) 따르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에 따라 기업 및 유한회사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 거버넌스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방안, 해당 전략에 따른 영향,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 방안, 이에 적용된 성과의 측정과 목표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개를 위한 TF로 2022년 금융

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TCFD는 2023년까지 의무요건의 상당부분을 시행하고자 하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공시 의무는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금융권과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만큼 기업들도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CFD는 연례 ESG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TCFD의 발표에 따르면 역시 금융산업이 ESG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CFD는 자신들이 권고한 11가지 공개 사항 중 하나 이상 일치한 정보를 공개한 기업을 AI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는데, 이중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산업 관련 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CFD 2022, p.10).

[표 3-3] AI 검토에서 분류된 산업별 사업체 수(2021년)

| 산업분류 | 사업체 수 |
|------------|-------|
| 재료 및 건축 | 353 |
| 은행 | 248 |
| 에너지 | 223 |
| 소비재 | 137 |
| 교통 | 136 |
| 농식품 | 123 |
| 보험 | 118 |
| 첨단기술 및 미디어 | 96 |
| 총계 | 1,434 |

출처: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2 Status Report. p.1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료 및 건축 부문의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단일 산업으로는 재료 및 건축부문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TCFD가 요구한 정보공개에 참여했다. 이러한 특징은 TCFD가 권고하는 11개 정보 공개에 대해 산업별로 공개한 평균값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재료 및 건축 관련 기업들의 평균 정보공개 비율은 42%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1년에 비해 16% 상승한 것으로(TCFD 2022, p.14), 재료 및 건축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산업별 평균 정보 공개 비율(2021년)

| 산업분류 | 비율 |
|------------|-----|
| 에너지 | 43% |
| 재료 및 건축 | 42% |
| 은행 | 41% |
| 보험 | 41% |
| 농식품 | 37% |
| 소비재 | 33% |
| 교통 | 32% |
| 첨단기술 및 미디어 | 15% |

출처: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2 Status Report. p.14.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체적으로 현재 TCFD가 권고하는 공개정보들을 살펴보면, ESG에 대한 통합적 기준과 정보를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와 다른 측면이 있다. 즉, ISSB와 ESRS와 달리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개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TCFD는 지배구조(Governance)/전략(Strategy)/위기관리(Risk Management)/지표 및 대상(Metrics and Targets) 등 4가지 부문에서 총 11가지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TCFD가 공개를 권고하는 정보들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된 정보들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특성은 통합적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전통적 정책 특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미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통해 기업이 노동인권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약식 재판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치지만, 노예 수준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통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하며, 이를 방조, 선동 또는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현대판 노예 방지법」 제5조).

아직 기업에게 사회적 기여에 대한 규제나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사실상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내적·외적인 압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Whitehouse 2006, p.6). 게다가 영국은 이미 2000년 세계최초로 CSR 장관(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적 책임)을 임명하고 규범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오고 있다.

이처럼 영국이 제도적·정책적으로 ESG 관련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나, 차후 ESG 관련 표준과 접근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제를 이끄는 국제적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ESG 관련 규정들을 유럽연합의 규정과 일원화시키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지경제, 2021).

[표 3-5] AI 검토에서 분류된 산업별 사업체 수(2021년)

| 구분 | 지배구조 | 전략 | 위기관리 | 지표 및 목표 |
|----------------|--|---|---|---|
| 주요 공개 사항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거버넌스 공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주요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 공개 |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방안 공개 | 중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연관된 평가 및 관리에 이용되는 지표 및 목표 공개 |
| 세부 공개 사항 | a)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방침 | a) 기업이 식별한 단기, 중기, 장기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a)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 a)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지표 |
| |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서 경영진의 역할 |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주요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b)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 b) Scope 1, Scope 2 및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 |
| | | c)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의 전략 탄력성 | c)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체 위기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 c) 기업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목표 대비 성과에 사용되는 목표 |

출처: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2 Status Report. p.1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③ 미국의 ESG 정책

□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 방향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환경 관련 정책들을 뒤집었다. 파리협정 재가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 보조금 지원,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관련 협력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소외 지역 지원 및 인종 형평성 향상에 관한 시행령」(Executive Order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시행 2021.01.20.)과 「최저임금 인상 시행령」(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시행 2023.01.01.)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ESG 관련 이슈에서 뒤처졌던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발 빠른 태도 전환으로 유럽과 거의 발맞춰가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청정에너지 개발과 생산 확대, 기후 관련 TF 구성 및 정보 공시 등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루고 있다(한상범 외 2021, p.4).

□ 미국 SEC 기후관련 공시

미국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는 Regulation S-K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공시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에 의하여 사업보고서(10-K)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왔다(한상범 외 2021, p.96).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2021년 3월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 관련 정보측정과 계량화 방법, 공시 표준 제정의 참여자 기준, 산업별 기후변화 공시 표준의 마련 여부, 공시 프레임워크(TCFD, SASB, CDSB)의 결정 문제, 글로벌 단일 ESG 기준의 사용 여부,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신뢰성,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의무화 여부, ESG 정보 공개와 기후 정보 공개의 연관성 여부, ESG 감독의 범위, 기후 변화 정보의 사업보고서 포함 여부 등” 15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함을 발표했다.

[표 3-6] 2021년 미국 SEC가 제안한 기후변화 공시 규정 방향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시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가능성 시사 - 공시 내용을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 |
| 질적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 전략, 관리, 목표 기재 |
| 양적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관련 지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기후변화 달성 목표 및 달성률 - 기업 자체(Scope 1, Scope 2)의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업체(Scope 3)의 탄소배출량 |
| 유연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운수업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수립 가능 |
| 객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근거 및 목표 달성 여부 |
| 그린워싱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지속가능, 저탄소 등의 이름을 가진 펀드들이 실제로 관련 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 |
| 공시 프레임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프레임워크,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 -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분된 프레임워크 유력 |

출처: 한상범 외(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1-01호. pp.97-98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편집.

새로운 SEC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유럽과 영국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ESG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기금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자에 수익률 이외에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는 것에 비판이 일면서, ESG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정치권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임팩트온 2022a). 2021년 6월 16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Corporat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시행 2021.06.14.)이 한 명의 기권표를 제외하고 214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였으나 민주당 220명 중 215명이 찬성하여 간신히 통과한 점과(최유경 2022, p.36), 현재 상원의 절반인 50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제도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ESG 공시 간소화에 관한 법률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시행 2021.06.08.)로 불리는 이 법안의 Title 1은 유럽에 비해 뒤쳐졌던 미국이 ESG와 관련하여 공격적으로 나서고자 함을 보여주었다(최유경 2022, p.35).

[표 3-7] SEC가 제안한 등록 펀드 및 투자자문사의 ESG 공시 사항

| 제안한 펀드 유형 | 정의 | 등록 펀드 | | | 투자자문사 ADV part 2A |
|-----------|--|--|---|--|--|
| | | 요약설명서 | 투자설명서 | 연차보고서 | |
| 통합 펀드 |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 ESG 요소와 함께 하나 이상의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이러한 ESG 요소가 펀드 설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펀드 | 펀드가 ESG 요소를 투자 과정에 통합하는 방법 및 고려되는 요소를 몇 문장으로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가 고려하는 ESG 요소 및 이를 투자 선택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자요소로 고려하는 펀드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시 사용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사항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전략에 대해 ESG 요소가 통합되는 방법 및 고려되는 요소를 설명 • ESG 요소가 다른 비 ESG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지 여부 및 방법을 설명 •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평가, 선택, 제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또는 방법론을 설명 |
| ESG 중점 펀드 | 하나 이상의 ESG 요소를 펀드 설계에 있어 중요 또는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는 표준화된 전략 개요(Strategy Overview) 표를 통해 ESG 요소 고려사항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 ① 펀드의 ESG 전략 개요 ② 펀드가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 ③ 펀드가 ESG 문제에 대해 의견권 대리 행사 및(또는) 회사와 협력하는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펀드가 ESG를 투자 선택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① 펀드가 추적하는 모든 지수에 대한 지수 방법론 ② 사용된 내부 방법론 ③ 펀드에서 사용하는 제3자 평가 시스템 ④ 모든 포함 또는 제외 실사에 적용되는 요소 ⑤ 사용된 제3자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 ⑥ 의견권 대리 행사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참여 활동의 목적에 대한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투표가 펀드의 ESG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펀드가 ESG 문제에 대해 대리투표를 한 방식에 관한 정보 공개 • 대리투표 이외의 수단을 통한 ESG 참여가 펀드의 ESG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 • 펀드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전략에 대해 ESG 요소가 통합되는 방식과 고려되는 요소를 설명 • 전략이 하나 이상의 ESG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와 방법을 설명 •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를 평가, 선택, 제외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또는 방법론을 설명 |
| 임팩트 펀드 | 하나 이상의 특정 ESG 영향을 달성하고자 하는 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중점 펀드에 필요한 모든 공시 항목 • 펀드의 투자목표에 펀드 투자를 통해 달성하려는 ESG 영향을 포함 • ① 펀드가 명시된 영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② 해당 진행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기간, ③ 추구하는 영향과 펀드의 재정적 수익 간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중점 펀드에 필요한 모든 공시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중점 펀드에 필요한 모든 공시 항목 • 펀드의 목표 달성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요소 및 보고기간동안 펀드의 목표 달성 상황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측면에서의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중점 펀드에 필요한 모든 공시 항목 • 투자자문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 • 제공(진행상황 측정 방법, 분석된 핵심 성과지표, 목표와 재정적 수익 간의 관계 등) |

출처: 공경신(2022). 미국 SEC의 ESG 펀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Name rule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2-16호. p.3.

SEC 또한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개정을 제안하면서, ESG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고려되었는지에 따라 ESG 펀드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ESG 공시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과 같은 ESG 관련 리스크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공경신 2022, p.2).

이는 ESG 관련 펀드들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채 “clean, environment, impact, response, social, sustain”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공경신 2022, p.4), 표준화된 명칭으로 투자자들이 펀드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SEC가 제시한 세 가지 ESG 관련 펀드 유형은 각각 다른 수준의 정보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투자자가 개선된 형태로 펀드의 정보를 습득하고 ESG 관련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2. 주요 기업 ESG 전략 사례

1)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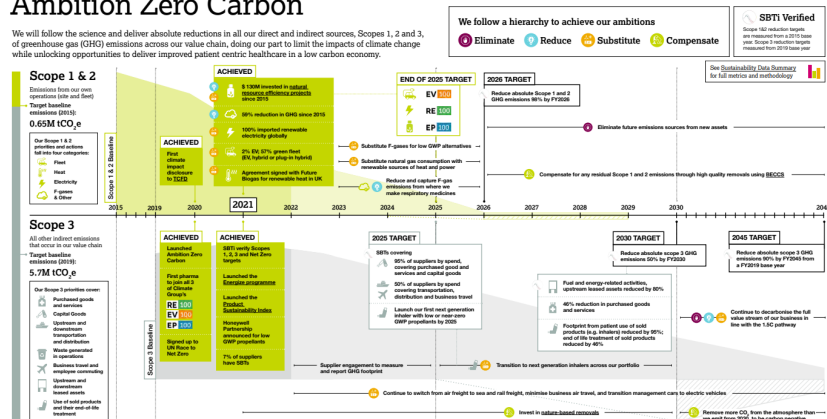
코로나 백신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 Astra AB와 영국의 Zeneca가 1999년 인수합병되어 설립되었다. 본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1)를 통해, ESG의 각 요소, 환경, 사회적 기여, 거버넌스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중요성 평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료 접근성, 환경 보호, 윤리 및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AstraZeneca 2021, p.4). 아스트라제네카는 의료 접근성과 관련하여 치료법 및 예방, 글로벌 의료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탄소제로 의료 서비스 가속화 및 자연과 생물 다양성에 투자를 강화하는 환경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기업과 가치사슬 내 공급망 전반의 윤리, 개방성, 포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환경

아스트라제네카는 탄소제로, 지속가능한 생산, 효율적 천연자원 이용을 환경 부문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6년까지 Scope 1과 2에서 온실가스를 98% 감축하고 Scope 3에서 2030년까지 50%, 2045년까지 90%를 단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AstraZeneca 2021, p.19). 이에 대한 세부 목표들도 설정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100% 전기차량 사용, 2015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까지 감축, 에너지 효율성 2배 제고, 100% 재생 전기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AstraZeneca, 2022, p.6). 또한, 2025년까지 활성 제약 성분(API) 합성시, 출시 시점에 자원 효율성을 90%에 도달하고, 2022년까지 본사의 100% 공급업체의 90%가 안전한 API 배출 농도를 준수하도록 했다(AstraZeneca 2021, p.19). 물 사용량 최저 사용량 유지 및 쓰레기 배출 감축도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Ambition Zero Carbon

We will follow the science and deliver absolute reductions in all our direct and indirect sources, Scopes 1, 2 and 3,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cross our value chain, doing our part to limi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hile unlocking opportunities to deliver improved patient centric healthcare in a low carbon economy.



[그림 3-8] 아스트라제네카의 탄소제로 로드맵

출처: AstraZeneca(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1. AstraZeneca.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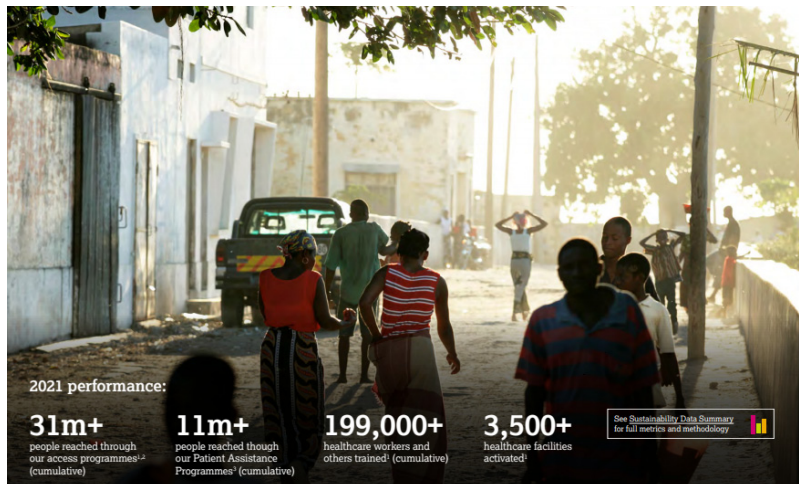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도별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설정한 목표들의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2021년에는 Scope 1과 2(직간접 배출)에서 2015년 대비 5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AstraZeneca 2021, p.19), 2022년에는 Scope 3(공급망 배출)에서 2015년 대비 38%를 감축하였다(AstraZeneca 2022, p.7). 물 사용량은 2021년 17%, 쓰레기배출량은 8%를 감축했으며(AstraZeneca 2021, p.5), 2022년에는 2015년 2,265톤에 달했던 일반쓰레기의 양을 596톤으로 1/4가까이 줄이는데

성공했다(AstraZeneca 2022, p.9). 또한, 천연자원 효율화 기금을 조성하여 2021년 56개 프로그램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AstraZeneca 2021, p.19), 2022년에 7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AstraZeneca 2022, p.10) 환경보호 지원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 이미 TCFD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사회

코로나 백신 효과와 관련된 논란들과는 별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사회적 공헌, 특히 ‘평등한 백신 접근성(equitable access)’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 180여 개국에 약 25억 회분의 백신을 원가로 공급하였는데, 그 중 2/3가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되었다(AstraZeneca 2021, p.11). 2022년 경제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들(Healthy Heart Africa, Young Health Programme and Healthy Lung programmes)을 통해 백신을 제공 받은 사람들은 약 4천5백만 명에 달한다(AstraZeneca 2022, p.3).

사실 이는 영국정부의 지원과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옥스퍼드 대학과의 비영리 추구 조건에 따른 것이며, 다른 RNA 백신과 달리 기존의 백신생산 방식으로 제작단가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팬데믹 초기 백신의 대량 공급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게 만든다.



[그림 3-9] 아스트라제네카의 2021 사회기여 부문 성과

출처: AstraZeneca(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1. AstraZeneca. p.10.

게다가 2021년 2.5억 회 분은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코백스(COVAX)를 통해 130여 개국에 전달되었고(AstraZeneca 2021, p.11), 2022년 12만 6천명에게 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AstraZeneca 2022, p.3) 사회적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평등한 백신 접종, 저렴한 가격, 3,500개 이상의 의료시설 운영 등을 통해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홍보해왔다.

| People reached by access to healthcare programmes (cumulative, million) ¹ | 2020 | 2021 | 2022 |
|--|----------------|----------------|----------------|
| Healthy Heart Africa ² | 16,675 | 23,741 | 32,078 |
| Young Health Programme ³ | 5.07 | 6.25 | 9.119 |
| Total people reached (all current and historic programmes)^{4,5,6,7} | 25.026 | 33.427 | 44.633 |
| Health facilities activated (cumulative) | 2020 | 2021 | 2022 |
| Healthy Heart Africa ⁸ | 868 | 958 | 1,258 |
| Total (all current and historic programmes)⁴ | 3,366 | 3,599 | 3,899 |
| Healthcare workers trained (cumulative) | 2020 | 2021 | 2022 |
| Healthy Heart Africa | 7,384 | 9,004 | 10,690 |
| Total (all current and historic programmes)^{4,9} | 111,735 | 124,998 | 126,684 |
| Young Health Programme (cumulative) ¹⁰ | 2020 | 2021 | 2022 |
| Peer educators trained ¹⁰ | 118,841 | 192,318 | 260,191 |
| Healthcare workers and others trained ¹¹ | 20,533 | 74,025 | 160,467 |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universal blueprint for prosperity for people and the planet, now and into the future.

SDG 3 | 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17 | Partnerships for the goals

[그림 3-10] 아스트라제네카의 헬스케어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성과

출처: AstraZeneca(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2. AstraZeneca. p.3.

□ 거버넌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아스트라제네카는 윤리와 투명성(ethics and 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직원 전원 윤리강령 교육 실시, '목소리 내기(speak up)' 문화 정착, 2년 단위 인권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공정 임금 네트워크(Fair Wage Network) 데이터 활용, 'Positive Sourcing Programme'을 통한 온전한 윤리적 지출, 성평등, 공급업체 다양성 프로그램,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산업재해비율 75% 감축(AstraZeneca 2022, pp.13-16)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1]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업 가치 전략

출처: AstraZeneca(2022). Sustainability Data Summary 2022. AstraZeneca. p.28.

이러한 목표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중간 관리자 이상의 임직원 중 여성비율 49.5%로 2020년 46.9%, 2021년 48.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straZeneca 2022, p.15). 2022년부터 처음 실시된 공급망 내 업체들의 ESG 평가도 공급업체 중 약 60% EcoVadis에 의해 평가를 받았으며, 53%가 ‘허용 가능한 ESG 등급(45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직원만족도와 관련된 5개 지표들(자기 개발 기회, 직속 관리자와 품질 개발 논의를 한 번 이상 갖는 직원 비율, 기업 전략에 대한 신뢰도, 직장 만족도, 지속가능성 연관성)에서 모두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AstraZeneca 2022, p.17).

[표 3-8] 거버넌스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요 성과(2022년)

| 2025 목표 | 2022년 성과 |
|--|--|
| 임직원 전원 윤리강령 교육 실시 | 100% 교육 완료 |
| ‘목소리 내기(speak up)’ 문화 정착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가 ‘목소리 내기(speak up)’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 |
| 2년 단위 인권설문조사 결과 반영 | 74개국에서 2년 단위 설문조사 실시 및 실행 계획 실시 중 |
| 공정 임금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중 |
| ‘Positive Sourcing Programme’을 통한 온전한 윤리적 지출 | 모든 공급업체들에게 관련 강령(Code of Ethics and Expectations of Third Parties) 요구 공급업체 중 53%가 ‘허용 가능한 ESG 등급(45 이상)’으로 평가 |
| 성평등 | 중간 관리자 이상의 임직원 중 여성비율 49.5% |
| 공급업체 다양성 프로그램 | 8개국에서 진행(2020년 4개국) |
| 산업재해비율 75% 감축 | 2015년 대비 72% 감축 달성 |

출처: AstraZeneca(2022). Sustainability Data Summary 2022. AstraZeneca. pp.13~18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넷플릭스(Netflix)

OTT 스트리밍 플랫폼의 선두주자이자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021년 2억2천2백만 명에 돌파했다(Netflix 2021, p.3).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넷플릭스 ESG 보고서(Netflix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인터넷 및 미디어(Internet & Media Services)'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dia & Entertainment)'의 지표를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현재 2021년 3번째 보고서까지 발간되었다. 넷플릭스는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환경

2021년 넷플릭스의 총 탄소 발자국은 약 1,530만 메트릭톤이었다(Netflix 2021, p.8). 이는 2020년보다 1.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넷플릭스 ESG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탄소발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운영이 37%, 스트리밍이 5%를 차지한다.

[표 3-9] Netflix의 2021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단위: MTCO2e)

| | 2019 | 2020 | 2021 |
|--------------------------------|-----------|-----------|-----------|
| Scope 1 | 51,487 | 30,883 | 62,815 |
| Scope 2(시장 기반) | 565 | 141 | 0 |
| Scope 2(장소 기반) | 26,594 | 28,585 | 42,291 |
| Scope 3 | 1,192,659 | 1,020,541 | 1,466,497 |
| 총계(시장 기반) | 1,244,711 | 1,051,564 | 1,529,312 |
| 탄소 크레딧 | 36,506 | 54,107 | 1,529,312 |
| 바이오 재생연료 (재생디젤, SAF 항공연료 등) | 0 | 0 | 1,007 |

출처: Netflix(2021).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eport 20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Report. Netflix. p.9. 참고하여 연구진 편집

넷플릭스는 '2021 넷플릭스 ESG 보고서'에서 탄소배출량 증가는 콘텐츠 제작 수의 증가에 기인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실 넷플릭스의 탄소저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전세계 OTT 시장에서 보

- 7) 전체 탄소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콘텐츠 제작에서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본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아니다. 'Don't Look Up'과 같이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들도 많지만, 넷플릭스는 본질적으로 전세계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이다.

다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망 내 ESG 개선은 기업의 직간접 배출보다 후순위로 미루어져 있다. 이는 공급망 내 ESG 개선의 중요도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또는 ESG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망 내, 즉 가치사슬에 연결된 공급자들 중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ESG 관련 정보들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각각의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Net Zero + Nature’는 이원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술적 탄소중립(Net Zero)을 통해 운영과 스트리밍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42%, 절반)을 제로로 만들고, 콘텐츠 제작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58%)은 탄소 크레딧의 구입 또는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Nature) 전략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2] 넷플릭스 Net Zero 전략의 기본틀

출처: (좌) Netflix(2021).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eport 20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Report. Netflix. p.12. / (우) Netflix(2023). Sustainability. <https://about.netflix.com/ko/sustainability> (접속일: 2023.03.13.)

운영과 스트리밍 부문에 수립된 Net Zero 전략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 다. 1)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최적화, 2) 운송, 건축물과 가동설비의 전기화, 3) 친환경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 에너지 및 전력으로 전환. 이 3단계 전략을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역순으로 바라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 재생에너지와 같이 탄

8) “넷플릭스는 10년 단위가 아닌 단기적인 기후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 두 가지 목표 모두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과학 기반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저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넷플릭스는 매년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환경에 투자함으로써 잔여 탄소 발자국을 영점화(제로화)하고 있습니다”(Netflix, 2023).

소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만을 에너지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Net Zero 전략의 핵심이다.

Net Zero 전략은 녹색건축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사무실은 할리우드에서 LEED-골드 등급을 받은 첫 번째 대형 상업업무시설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Netflix, 2023). 이 건물은 70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진다.



[그림 3-13] 넷플릭스 LA 사무소

출처: Netflix(2023). Sustainability. <https://about.netflix.com/ko/sustainability> (접속일: 2023.3.29.)

반대로 + Nature 전략은 통제하고 통합하기 어려운 전세계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여 상쇄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보듯이 넷플릭스는 2019년 36,506 MTCO₂e, 2020년 54,107 MTCO₂e, 2021년 1,529,312 MTCO₂e로 탄소 크레딧의 구매량을 급격히 늘렸다.

[표 3-10] Netflix의 2021년 탄소 크레딧 구매 포트폴리오

| 프로젝트 명 | 국가 | 프로젝트 타입 | 판매자 | 매수량 (Tonnes) |
|--|-----------|---------------------------------------|---------------------------------------|-----------------|
| Bajo Calima y Bahía Málaga | Colombia | Retention: REDD+ | Pachama | 215,607 |
| Chyulu Hills REDD+ Project | Kenya | Retention: REDD+ | Conservation International | 242,000 |
| Community Based Mexico Forestry: Hidalgo Ejido | Mexico | Removal: Reforestation | Cool Effect | 37,128 |
| Community Based Mexico Forestry: San Lucas Ejido | Mexico | Removal: Reforestation | Cool Effect | 3,352 |
| Envira Amazonia REDD+ | Brazil | Retention: REDD+ | CarbonCo | 214,500 |
| ICICO Community Based Reforestation | Mexico | Retention & Removal: IFM | Cool Effect | 14,540 |
| Kasigau Corridor REDD+ | Kenya | Retention: REDD+ | Arbor Day Foundation and Everland LLC | 242,000 |
| Kenya Grasslands Improved Grazing | Kenya | Removal: Soil Carbon Sequestration | Native a Public Benefit Corporation | 180,000 |
| Klawock Heenya Improved Forest Management Project | USA | Retention & Removal: IFM | Bluesource | 39,197 |
| Kootznoowoo Improved Forest Management Project | USA | Removal: IFM | Bluesource | 12,000 |
| Landfill Gas Extraction An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 | Turkey | Methane Mitigation | Climate Partner | 92,000 |
| Mycorrhizal Inoculation Accelerated Carbon Removal | Chile | Removal: Reforestation | Climate Care & Mikro-Tek | 171,036 |
| Rips Redwoods | USA | Removal: IFM | Pachama | 18,893 |
| Shaan Seet Improved Forest Management Project | USA | Removal: IFM | Bluesource | 15,059 |
| TIST India | India | Removal: Reforestation | Cool Effect | 10,000 |
| Vida Manglar Blue Carbon | Colombia | Retention: Mangrove Preservation | Conservation International | 20,000 |
| Yarra Yarra Native Reforestation | Australia | Removal: Reforestation | Cool Effect | 2,000 |
| Total | | | | 1,529,312 |

출처: Netflix(2021).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eport 20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Report. Netflix. p.20.

□ 사회 및 거버넌스

2021년 넷플릭스의 인력구조는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ESG 보고서에서도 개선되었던 사내 인력의 다양성은 2021년에 더욱 다양해졌다.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사내 인력 비율과 경영진 구성비가 50%를 넘었고, 인종 구성에서 다양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 내 아시아인 인력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경영진 비율은 1%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창작 평등을 위한 넷플릭스 펀드(The 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를 통해 유색인종과 여성, 성소수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넷플릭스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포용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넷플릭스 이사회는 2022년 연례회의에서 절대다수 투표조항 삭제, 주주의 특별회의 소집 요청 허용, 이사회 기밀 해제, 연례선거 지지 등 결정구조를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Netflix 2021, p.41).

[표 3-11] Netflix의 다원주의 정책에 따른 사내 인력 현황(단위: %)

| 경영진, 전문가 및 기타 모든 직원의 성별 및 인종/민족 그룹 대표 비율 | 2020년 | 2021년 |
|--|-------|-------|
| 여성(글로벌) | 48.7 | 51.7 |
| 경영진 여성(글로벌) | 47.8 | 51.1 |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미국) | 8.6 | 10.7 |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경영진(미국) | 10.9 | 13.3 |
| 히스패닉(미국) | 7.9 | 8.6 |
| 히스패닉 경영진(미국) | 4.3 | 4.4 |
| 아시아인(미국) | 24.0 | 23.5 |
| 아시아인 경영진(미국) | 15.3 | 16.2 |
|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미국) | 0.3 | 0.3 |
|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경영진(미국) | 0.0 | 0.1 |
|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미국) | 0.5 | 0.5 |
|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 경영진(미국) | 0.6 | 1.0 |
| 중동/북아프리카(미국) | 0.8 | 1.3 |
| 중동/북아프리카 경영진(미국) | 0.3 | 0.3 |

출처: Netflix(2021).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eport 20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Report. Netflix. p.30.

3. ESG 경영을 녹색건축 활동과 연계한 해외사례

1) 녹색건축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ESG 경영 연계 사례

□ 델타전자(대만)⁹⁾

델타전자는 가전제품 및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전원 관리 솔루션, 시각 디스플레이, 산업 자동화, 네트워킹 제품 및 재생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공급업체이다. 델타전자는 전 세계에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만, 중국, 태국, 멕시코, 인도, 유럽 등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 전자 분야에서 ESG 경영을 하는 델타전자는 환경 보호에 전념하며 수년 동안 무연 생산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전 세계에 27개의 녹색 건축물과 2개의 녹색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였고 기부하였다. 2019년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사무동 15개동과 후원사 5개동을 통해 총 2148만kWh의 전력을 절감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 13,415미터톤을 감축한 것과 같다.



[그림 3-14] Magic School of Green Technologies(좌), The Namasia Mincyuan Elementary School(우)

출처: Delta(2022) Green Buildings. https://esg.deltaww.com/en/csr_GreenBuilding
(접속일: 2023.1.5)

델타전자는 자사 제품과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녹색 건축에 적용하였고 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의 LEED,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의 BREEAM, EEWH, 중국 친환경 건물 라벨 등의 인증서를 연속적으로 획득하였다.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같은 연면적(EUI, kWh/m²)에 해당하는 연간 전력소비량을 정하였다. 델타전자는 ISAE3000 인증 프로세스에 따라 15개의 그린 오피스 빌딩과 5개의 학교 녹색 건축을 통해 절약된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2019년 글로벌 인증이 된 그린 오피스 빌딩은 1,973만kWh 이상의 전기를 절약

9) Delta(2022) Green Buildings. https://esg.deltaww.com/en/csr_GreenBuilding
(접속일: 2023.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하였고 약 12,485미터톤의 탄소를 감소시켰다. 또한 녹색 건축으로 인증된 데이터 센터는 257,766kW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였다.

2009년부터 NCKU의 Magic School of Green Technologies과 the Namasia Mincyuan Elementary School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인증된 녹색 건축물을 기부하였는데, 2019년에 기부된 녹색 건축물들은 총 174만kWh의 전기를 절약하였고, 929.4미터톤의 탄소를 감소시켰다.

□ 월마트(미국)¹⁰⁾

미국의 월마트는 사업모델의 큰 변화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일상적이 활동에서 ESG경영 수준을 높인 사례이다. 월마트는 재생 회사가 될 계획으로 2040년 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다. 월마트는 매장 및 창고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0년 약 36%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장 인근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최근에는 에너지 관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와 손잡고 기가톤 PPA(Gigaton PPA)를 발표했다. 월마트가 2017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 기가톤’의 일환으로서 이는 10억 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월마트 자체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급업체들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양을 말한다. PPA란 기



[그림 3-15] 월마트 캘리포니아 매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출처: pv magazine(2021). Walmart adds 6.5 MW of rooftop and canopy parking solar to California stores.

<https://www.pv-magazine.com/2021/04/19/walmart-adds-6-5-mw-of-rooftop-and-canopy-parking-solar-to-california-stores/>

(접속일: 2023.1.5)

10) Lucy Handley(2020). Walmart has a grand plan to help suppliers club together to buy green energy. CNBC. 10월 23일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전기를 공급받는 제도로, 영세한 공급업체들이 함께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가톤 PPA를 통해 월마트의 공급업체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2021).



[그림 3-16] 월마트 매사추세츠 매장: 주차장에 풍력 터빈으로 매장 에너지 공급

출처: flickr(2023). <https://www.flickr.com/photos/walmartcorporate/5258282721/sizes/z/in/photostream/> (접속일: 2023.1.10.).

2021년 9월, 월마트는 20억 달러 10년 만기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월마트의 첫 번째 녹색 금융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월마트가 발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유형이며, 재생 에너지·고성능 건물·지속 가능한 운송·폐기물 제로 및 순환 경제·물 관리·서식지 복원 및 보존을 포함한 적절한 지출 범주 내에서 진행하여 사용될 것이다. 또한, 매년 채권 수익 할당에 대한 진행 사항 및 영향 보고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다.

[표 3-12] 월마트의 매장 재생에너지원 이용 목표와 추이

| 목표 | 측정항목 | 2018 | 2019 | 2020 |
|---|--------------------------------------|------------------|------------------|------------------|
|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 매장의 50%, 2035년까지 100%전력 공급 |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추정 비율 | 28% | 29% | 36% |
| |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총 에너지 추정치 | 155,000,000 (GJ) | 153,000,000 (GJ) | 150,000,000 (GJ) |
| | 그리드 전기에서 공급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예상 비율 | 64.0% | 63.6% | 62.4% |

출처: CNBC(2020). Walmart has a grand plan to help suppliers club together to buy green energy.
<https://www.cnbc.com/2020/10/23/walmart-wants-suppliers-to-buy-renewable-energy-collectively.html> (접속일: 2023.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Accor 호텔(프랑스)¹¹⁾

Accor 그룹은 2016년 'Planet 21-Acting here!'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제로탄소 건물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Planet 21 - Acting Here'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환대"를 위해 노력하고 직원과의 협력, 고객의 참여, 파트너와 혁신, 지역 사회의 참여라는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Planet 21 프로그램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등급을 4가지(Bronze, Silver, Gold, Platinum)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호텔의 손님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호텔 사업 중에서도 음식과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The Accor 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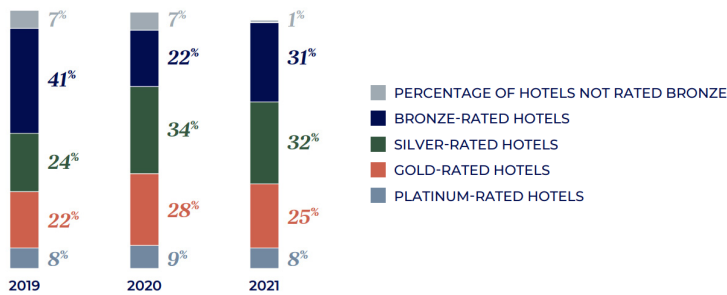


[그림 3-17] Accor 그룹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출처: Accor(2021). 2021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ccor. p.126.

파리기후변화총회에서 체결된 내용에 따라 '온도변화 1.5도 미만'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구책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2020년 전체 탄소배출에서 1단계 배출(직접배출) 비율을 6%대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비율을 46%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3자의 ESG 평가를 도입해 외부 전문기업(Sustainalytic) 으로부터 ESG 실천현황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Accor 그룹은 2018년에 1200억 유로 규모의 ESG 연동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 등 총 15개 은행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시 갱신이 가능한 조건의 대출을 승인받았다(곽미성 2021).

11) Accor(2023a). ALL Heartist Fund. <https://group.accor.com/en/group/our-commitments/all-heartist-fund> (접속일: 2023.1.10.)와 Kotra해외시장뉴스(2011). 스페인 저가 마케팅, 선택이 아닌 필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04613 (접속일: 2023.1.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8] Planet 21 프로그램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4가지 등급과 이에 포함되는 호텔 추이

주: 지속가능성 정도에 따라 Bronze, Silver, Gold, Platinum 순

출처: Accor(2021). 2021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ccor. p.126.

[표 3-1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Planet 21-Acting here 세부 계획

| 구분 | 세부 계획 |
|-----|--|
|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et 21 릴레이 지정 - 그룹의 가치와 윤리적 규칙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 업무에서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 고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이상 숙박 시 린넨 재사용 - 친환경 세면도구 2종 이상 제공(샤워젤, 비누, 샴푸) -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플래닛 21 커뮤니케이션 마커 표시 - 에코 라벨 청소 제품 사용 - 2022년 말까지 게스트 경험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제거 |
| 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물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 및 분석 - 모든 샤워기, 수도꼭지 및 번기에 대한 표준 물 흐름을 준수 - 적절한 폐수 처리 보장 - 에너지 절약 램프 사용 - 유해 폐기물 재활용 - 종이, 유리, 판지 또는 플라스틱 중 두 가지 유형의 폐기물 재활용 |
| 음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에 처한 어종 금지 |
| 파트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고객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매년 1개의 주요 행사 |

출처: Accor(2021). 2021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ccor. pp.14-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전 세계에 Accor 브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5,300 여개의 호텔이 있으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일마다 2개의 새로운 호텔이 문을 열고 있다. 호텔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탄소 배출량과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1년 Planet 21의 첫 번째 시즌을 시작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1개의 신규 호텔이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2015년까지 대부분 독일, 영국, 프랑스에 위치한 21개 호텔이 LEED, BREEAM, HQE 또는 DGNB 인증을 획득했다. Accor 그룹은 호텔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4]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Accro그룹의 호텔

노보텔 로잔 부시니(스위스)



출처: Accor(2023b). Your Perfect Stay at the Best Price. <https://all.accor.com/> (접속일: 2023.01.10.)

2007년에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확장

- 건물의 파사드 단열
- 잔디 덮인 지붕으로 단열 향상
- 손실된 열(예: 저온 저장고)을 회수하여 온수를 생산하는데 사용 → 열회수를 통해 여름에는 온수 요구량의 70%, 겨울에는 20%를 충족하였음

소피텔 더 팜 두바이(UAE)



출처: Accor(2023b). Your Perfect Stay at the Best Price. <https://all.accor.com/> (접속일: 2023.01.10.)

2013년 개장,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에 있는 최초의 호텔이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그린 글로브(Green Globe) 인증을 받은 소피텔

-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단열재로 구성된 지붕
- 이중창으로 단열 향상
-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컨
- 열회수 시스템
- 복도 조명용 존재 센서
- 온수 요구량의 45%를 충족하는 530㎡의 태양광 패널

노보텔 뮌헨 아르눌프파크(독일)



출처: Booking.com(2023) Find your next stay. <https://booking.com/> (접속일: 2023.01.10.)

2015년 9월에 개장, 에너지 성능에 대해 독일 DGNB 인증을 획득

- 이중창으로 단열 향상
- 100% LED 조명
- 열회수 시스템
- 지역 난방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전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및 탄소 효율이 높음)
- 연간 약 20,000kWh를 생산하는 163㎡의 태양광 패널

출처: Accor(2023c) Acting for People and the Planet. <https://group.accor.com/en/commitment/planet-21/building> (접속일: 2023.1.10.)

□ 힐튼 그룹(미국)¹²⁾

여행 숙박 업계의 초대형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힐튼은 최근 들어 관광객들의 여행에 대한 니즈와 기호가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판단하였다. 현대 사회의 관광객들은 단순히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체험을 원한다.

힐튼(Hilton)은 이러한 의미에서 "Travel with Purpose(목적 있는 여행)"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힐튼의 "목적있는 여행" 프로젝트는 책임 있는 여행과 글로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힐튼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전략이다.

힐튼은 2021년 4월, '2020 ESG Report'를 발간하여 2030년까지 힐튼이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2020년 추진하고 실행했던 ESG 경영성적을 발표하였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향후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힐튼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지역사회와 공급망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환경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9] Hilton Garden Inn(Faroe Islands)

출처: Hilton(2023). Environmental Impact. <https://esg.hilton.com/environment/#pavingthewaytonetzero> (접속일: 2023.1.10.)

12) 태평양관광기구(2023). [이슈리포트] 사례 속 지속가능발전 ③ 힐튼의 '목적있는 여행'과 'ESG 경영'.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ptokorea&logNo=222420691946&categoryNo=27&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접속일: 2023.2.14.). 참고 및 요약하여 작성.

힐튼은 호텔 서비스업이 Zero-탄소 경제를 향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힐튼은 2030년까지 탄소 발생량을 61%까지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한다.

힐튼의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힐튼 가든 인’은 밖으로는 식물로 뒤덮인 지붕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단열 효과를 낸과 동시에 실내에는 객실가동물에 맞춘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 등 지역 내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최초의 호텔이기도 하다.



[그림 3-20] A Waldorf Astoria Hotel

출처: Hilton(2023). Environmental Impact.

<https://esg.hilton.com/environment/#pavingthewaytonet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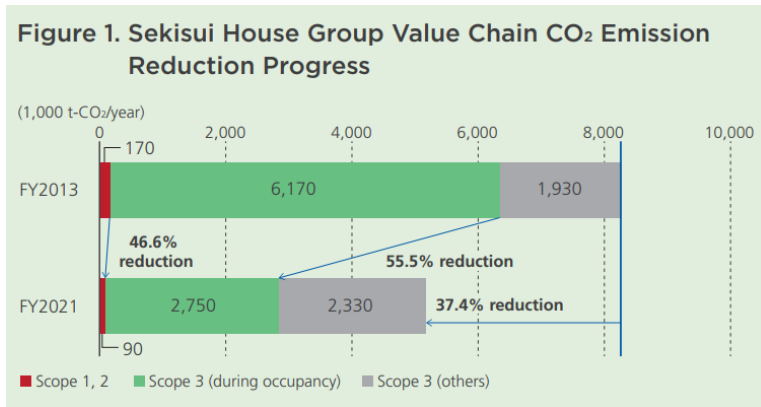
(접속일: 2023.1.10.)

또한, 힐튼은 ‘물’을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자원의 하나로 생각하며 모든 밸류체인에서 이 소중한 물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30년까지 힐튼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물을 50%까지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며, 수자원 리스크가 큰 20개 지역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물 관리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럭셔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호텔의 전체적인 물확보 일정과 수영장의 물 사용량 등의 최적화, 호텔의 증기 타워시스템 재개발, 호텔 청소 및 식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모든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 장치 장착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호텔 전체의 물 소비량을 약 20% 절감할 수 있었다.

2) 친환경 녹색건축 공급망(건축자재 또는 건축물 생산) 기업 사례

□ 세키스이하우스(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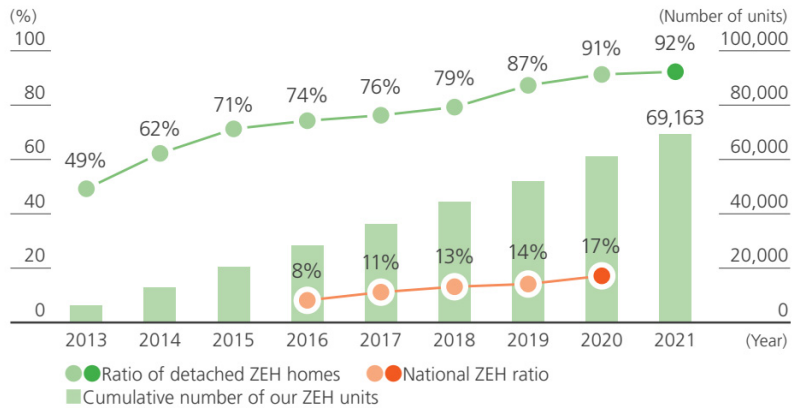
[그림 3-21] 세키스이하우스의 CO₂ 배출량 감소 진행률

출처: SEKISUI HOUSE(2022). Value Report 2022. SEKISUI HOUSE. p.111.

세키스이하우스는 1960년 설립된 주택건설회사에서 출발했다.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일본 최대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이다. 본사는 오사카에 있으며, 일본에 6개의 공장이 있다. 세키스이하우스는 1960년 8월 1억 엔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뒤 A모델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63년 사명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공법을 개선하며 다양한 모델의 주택을 선보였다. 1987년 워싱턴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1993년 전성기를 맞아 7만 8000채 이상의 주택을 판매했으며, 그 해 총 건설건수가 100만 채에 달했다(네이버 지식백과 n.d.).

2013년 친환경 건축기술로 지은 최첨단 주택 ‘제로 에미션하우스(Zero Emission House)’의 문을 열었다. ZEH 주택은 재해 탄력성이 높아 쾌적성이 우수하며, 태양광 발전을 표준 장비로 하여 정전시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단열 성능이 높은 창문을 채택하고 개방적인 실내 환경을 추구한다. 태양전지판의 경우, 독점적인 타일 모양의 태양 전지판의 표준 기능을 통해 복잡한 지붕 모양의 구조물에도 대용량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타일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패널이라 외부에서 볼 때 눈에 띄지 않아 고객이 원하는 아름다운 외관도 갖출 수 있다.

Growth in the Number of Detached ZEH Homes



[그림 3-22] 세키스이하우스 ZEH 주택 증가추이

출처: SEKISUI HOUSE(2022). Value Report 2022. SEKISUI HOUSE. p.104.



[그림 3-23] 세키스이 하우스의 타일을 기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출처: SEKISUI HOUSE(2022). Value Report 2022. SEKISUI HOUSE. p.104.

2013년 ZEH 주택 출시 이후 2021년 까지 69,163개의 ZEH주택이 구축되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전략에너지계획에서 2030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ZEH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충족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 단독주택의 60%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다.

□ 리브릭스(인도네시아)¹³⁾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약해 매일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의 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등장한 기업이 리브릭스(Rebricks)이다. 리브릭스는 폐비닐이 20% 포함된 콘크리트 벽돌을 개발하는 건축자재 회사이다. 버려진 비닐포장지를 잘게 조각낸 뒤, 모래·시멘트와 섞어 모양을 잡아 건축자재인 벽돌로 재탄생 시킨다. 쓰레기를 기부받거나 구매하여 매일 8만 8천여 개의 폐비닐을 재활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모은 쓰레기는 약 4t에 해당하고, 만들어진 벽돌은 10만 여개 정도이다. 벽돌을 생산 하면서 사용되는 탄소 집약 시멘트에 대한 수요를 20%까지 줄였다. 건축자재인 벽돌을 정부의 표준 규격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 경쟁력 있는 가격에 250kg/㎡의 구조 응력을 갖추어 개발되었다.



[그림 3-24] 리브릭스 사업 절차도

출처: REBRICKS(2021). The Process Infographic. <https://rebricks.id/what-we-do> (접속일: 2023.1.5.)

□ AZEK(미국)¹⁴⁾

미국 시카고 Fulton Market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The AZEK Company는 Google, Dyson 및 Glassdoor와 같은 다른 선두 기업이 있는 변화한 비즈니스 지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AZEK Company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및 미네소타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제조기술 및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 유지 보수가 적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합성 데크, 건축 제품을 제조하는 AZEK은 100%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가속화하는 것과 2026년 말까지 매년 10억 파운드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13) REBRICKS(2021). The Process Infographic. <https://rebricks.id/what-we-do> (접속일: 2023.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4) AZEK(2023a). The Azek Story. <https://azekco.com/about-us/the-azek-story> (접속일: 2023.1.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ZEK의 합성 데크 제품은 소나무 데크보다 80%의 재활용 재료 사용과 15% 더 낮은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특징으로 하며, AZEK의 폴리머 데크 제품은 50%의 재활용 재료 사용과 5% 더 낮은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갖춘다. 매년 매립지로 가는 16억 파운드의 PVC와 300억 파운드의 폴리에틸렌이 전용될 수 있다. 또한 AZEK는 폴리에틸렌, PVC와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뿐 아니라 목재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환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AZEK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주택 개량 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ESG 변화를 일으킨다.

[표 3-15] AZEK의 FULL-CIRCLE ESG 하이라이트

| 분류 | 내용 |
|----------|--|
| 재활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에 매립지에서 전용된 500mm 파운드의 폐기물 및 스크랩 (2020년 400mm 파운드에서 증가) - 2026년까지 매년 10억 파운드의 재활용 재료 사용 -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99%가 재사용 - 2021년에는 압출된 재료의 56%가 재활용 제품에서 생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의 54%에서 증가한 수치 |
|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대비, 2021년 탄소 집약도 15% 감소 - 평가 결과에 따르면 TimberTech 데크는 Pine 및 Ipe 데크보다 라이프 사이클 탄소 발자국이 더 낮음 - 고객이 목재 대신 합성 데크 제품을 선택함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3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절약 - 일리노이주 시카고 본사: LEED 인증 2019 - 효율적인 물 사용: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당사 시설은 연간 사용되는 물의 96%를 재활용하여 정수 여과 시스템을 사용 - 폴리에틸렌 재활용 시설은 전력, 물, 난방, 냉방 및 조명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 -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골드 회원) |
|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중점 - 다양성에 전념 : 55% 경영진의 성별/인종 다양성 - 제품 전반에 걸친 정교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일관된 생산을 보장하며, 인증된 검사기관의 품질 감사를 매년 진행 - 미국에서 제조 - 참여 직원 기반: 연간 교육, 리더십 개발, 인재 검토, 경쟁 혜택 및 인센티브 계획 - 구성원이 AZEK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IPO에서 기념 교부금을 수여 - 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ESG 정책 및 사명 선언문 확대 및 채택 - 자선 기부 및 봉사 행사를 통한 지역 사회 참여 - 시급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
| 거버 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성,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건전한 거버넌스 관행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및 약속 - 이사회는 50%의 성별과 인종적으로 다양 - 재무재작성시 보상회수정책 도입 - ESG 운영 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 - ESG는 2021년 연간 인센티브 계획에 따른 개인 업무 수행 성과의 구성 요소 |

출처: AZEK(2023b).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https://investors.azek.com/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 (접속일: 2023.2.23.)

3) 녹색대출 지원 금융기업

□ 노르디아(스웨덴)¹⁵⁾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 내 1위 금융그룹인 노르디아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다. ESG경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노르디아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려는 욕구와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 원칙(GBP)은 사회적 채권 원칙(SBP),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SBG)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SLBP)과 함께 "원칙(The Principles)"의 체계 하에서 수립되었다. 녹색채권은 다섯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갖춰야 한다. 일반 채권 발행과 구별되는 절차로서 ▲KPI선정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 측정 ▲채권의 특성 ▲보고 ▲검증 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어떤 유형의 그린 프로젝트에 충당할 것인지, 프로젝트 선정과 과정에 있어 기준은 문제없는지, 조달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 결과와 효과 등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3-25]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발행 원칙

출처: ICMA(2021). 사회적 채권 원칙: 녹색채권 발행 위한 자발적 절차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ICMA. p.11.

녹색대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목적이나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기술개발과 같은 사회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개인 고객들에게는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 집 지붕에 태양전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출, 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

15) Nordea(2021). ESG analyst: Green buildings is the way of the future. <https://www.nordea.com/en/news/esg-analyst-green-buildings-is-the-way-of-the-future> (접속일: 2023.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기 위해 주택의 단열 개선을 위한 대출 등이 가능하다. 기업에게는 태양광 공원 건설을 위한 대출, 무공해 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대출, 정수기술로 일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대출 등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녹색대출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인정된 녹색채권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녹색 모기지(EEM:energy Efficient Mortgages)을 통해 국가에서 건물의 에너지 분류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후 스마트 주택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한 제품도 마련되어 있다.

4) 싱가포르 저에너지 건축 유도 정책 사례

□ SLE 빌딩 프로그램(싱가포르)¹⁶⁾

싱가포르의 건설청인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는 2005년에 처음 BCA Green Mark 제도를 출범하여 싱가포르 최초로 녹색 건축 계획의 근간을 두었다. 2018년 SLE(Super Low Energy) 빌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녹색인증 기준을 넘어 싱가포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기능성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녹색건축 마스터플랜(SGBMP) 2030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30년까지 건물의 80%를 녹색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싱가포르의 건물 49%가 녹색화가 되었고, 건물의 녹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BCA는 2021년 10월부터 상업용 건물을 시작으로 건설되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식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2분기부터 6,300만 달러 현금 인센티브 계획안(Green Mark Incentive Scheme for Existing Buildings 2.0)을 시작하였다.

둘째, 2030년부터 신규개발의 80%가 SLE 건물이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공공 부문은 2006년부터 토지면적 5,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녹색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부문의 신축건물에 그린마크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 개발에서 SLE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건물 소유주는 건축환경변환 연면적 인센티브 제도(BE Transformation GFA)에 따라 민간 부문 개발에서 더 높은 수준의 건설 ITM(Industry Transformation Map: 산업 변환 지도) 결과를 제공하면 보너스 연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SLE

16) BCA(2021a). Green Building Masterplans. <https://www1.bca.gov.sg/buildsg/sustainability/green-building-masterplans> (접속일: 2023.1.6.)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에 따라 건축 계획을 진행하면 연면적을 최대 3% 추가 허용된다.

셋째, 2030년까지 최고수준의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을 80% 개선하는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BCA는 GBIC(Green Buildings Innovation Cluster : 건물 에너지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 GBIC 2.0은 건물 소유주 및 개발자와 같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업계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솔루션과 상용화하며, GBIC 2.0을 통한 연구 분야에는 대체 냉각 기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빌딩 솔루션 및 차세대 빌딩 환기 개발이 포함된다.

건축환경변화 연면적 인센티브 제도

(BE Transformation GFA : The Built Environment Transformation Gross Floor Area)

건축 환경 변화 연면적 인센티브 제도는 디지털화(Digitalisation), 생산성(Productiv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역에서 향상된 ITM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개발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 5,000㎡의 사유지에 신축 건물을 개발할 때 적용된다. 지원자는 입찰기술조건에 명시된 기준의 최대치를 적용하면 최대 3%의 연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개발유형은 주거(콘도 및 아파트 개발), 비주거(사무실, 소매점, 호텔, 병원, 산업 및 기관 개발 등), 혼합용도로 구분된다.



[그림 3-26] 향상된 ITM을 위한 3가지 핵심 영역

출처: BCA(2021b). Built Environment Transformation Gross Floor Area Incentive Scheme. <https://www1.bca.gov.sg/buildsg/sustainability/green-mark-incentive-schemes/built-environment-transformation-gross-floor-area-incentive-scheme> (접속일: 2023.1.6.)

[표 3-16] 건축환경변화 연면적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ITM 요구사항

| 건물유형 | 디지털화 (Digitalisation) | 생산성 (Productivity)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 | | | | | | |
|--|--|--|---|-----|----|-----|---------------|-----|------------|-----|---|
| 주거 - 콘도 - 아파트 개발 | - 라이프사이클의 3단계 를 포함하는 최소 5개의 통합 디지털 전송(IDD) 필수 사용 사례와 단계 당 1개 이상의 사용 사례 - CDE(Common Data Environment) 데이터 표 준 및 CDE 호환 디지털 플랫폼 사용 | - 최소 65%의 사전 제작 용적 구조(PPVC) - 최소 65%의 사전 조립 식 기계 전기 및 배관 (Prefab MEP) 시스템 - 최소 70% 시스템 품워크 - 품질 표시(QM) | 녹색인증(GM) 플레 티넘 SLE 및 유지관 리성 배지 포함 | | | | | | | | |
| 비주거 - 상업 - 산업 - 기관 | - 라이프사이클의 3단계 를 포함하는 최소 5개의 통합 디지털 전송(IDD) 필수 사용 사례와 단계 당 1개 이상의 사용 사례 - CDE(Common Data Environment) 데이터 표 준 및 CDE 호환 디지털 플랫폼 사용 | 〈호텔〉 - 최소 65% PPVC - 최소 65%의 Prefab MEP 시스템 - 최소 70% 시스템 품워크 〈사무실〉 - 총 사무실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 용 강철(SS) - 최소 65%의 Prefab MEP 시스템 - 최소 70% 시스템 품워크 | 유지관리성 배지가 있 는 녹색인증(GM) 플 래티넘 SLE | | | | | | | | |
| 혼합용도 - 위의 조합 기타 - 위에 명시되 지 않은 비 주거용 개발 - URA 설계 자문단의 검 토 대상 개 발사항 | 최소 5개의 통합 디지털 전송 (IDD) 필수 사용 사례 포함 - 민간 주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의 3단계 - 민간 상업/산업 개발 프 로젝트 라이프사이클 4단계 - CDE(Common Data Environment) 데이터 표 준 및 CDE 호환 디지털 플랫폼 사용 | - 최소 30% 생산성 향상 - 채택해야 하는 최소 사전 제작 수준 <table><tr><td>구조</td><td>65%</td></tr><tr><td>건축</td><td>80%</td></tr><tr><td>Prefab MEP</td><td>65%</td></tr><tr><td>시스템 품워크</td><td>70%</td></tr></table> - 주거 개발에서 토지를 제 외한 구성요소에 대한 품 질표시(QM) | 구조 | 65% | 건축 | 80% | Prefab MEP | 65% | 시스템 품워크 | 70% | 유지관리성 배지가 있 는 녹색인증(GM) 플 래티넘 SLE가 해당 개발의 주거 및 비주 거 구성요소에 해당 |
| 구조 | 65% | | | | | | | | | | |
| 건축 | 80% | | | | | | | | | | |
| Prefab MEP | 65% | | | | | | | | | | |
| 시스템 품워크 | 70% | | | | | | | | | | |

출처: BCA(2021b). Built Environment Transformation Gross Floor Area Incentive Scheme. <https://www1.bca.gov.sg/buildsg/sustainability/green-mark-incentive-schemes/built-environment-transformation-gross-floor-area-incentive-scheme> (접속일: 2023.1.6.)

5) 프랑스의 녹색사업 지원 녹색채권 사례

□ 국채(OAT verte)(프랑스)¹⁷⁾

프랑스 정부 국채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권 중 녹색사업에 지출되는 채권을 녹색국채(OAT verte)라고 부른다. 프랑스 녹색국채는 '적격 녹색지출'로 선정된 사업의 기후 및 환경정책 이행과 관련된 세금지출, 투자지출, 운영지출 등에 할당된다. 프랑스 녹색국채는 '적격 녹색지출'로 선정된 사업의 기후 및 환경정책 이행과 관련된 세금지출, 투자지출, 운영지출 등에 할당된다.

[표 3-17] 프랑스 녹색국채의 적격 녹색지출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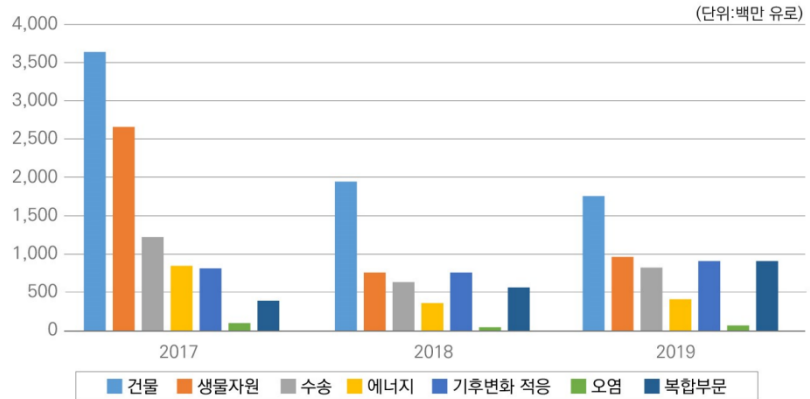
| 부문 | 분류 |
|--------------------|---|
| 건물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
| 수송 | 대중교통 유지·확대·홍보 및 다용도 수송 솔루션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차량 탄소집약도 저감 |
|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포함) | 기술 및 제품, 서비스, 폐기물에너지, 폐기물 관리 |
| 생물자원 | 에너지효율 제품, 에너지효율 시스템 및 공정, 열병합, 폐열회복, 에너지 생산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친환경이며 효율적인 산업공정, 서비스 |
| 기후변화 적응 | 화물 및 철도 수송 시스템, 도심 철도 수송 시스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대체연료차량, 간선 급행버스 체계, 바이오연료, 운송물류 |
| 환경오염 대응 및 환경효율 |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저탄소 시설, 스마트그리드로 운영되는 제품 및 기술, 대체 기술 |

출처: 조용성 외(2021).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p.12

녹색지출 내역은 재무부에서 추적하며, 할당 내역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원칙하에 관리된다. 외부기관의 심사를 받은 투자금의 할당내역, 적격 녹색지출의 성과 지표, 환경적 영향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녹색지출의 환경적 영향 평가는 독립된 녹색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채권평가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녹색국채 투자금 할당내역과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녹색국채를 처음 발행한 2017년부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17) 조용성 외(2021).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pp.1-35의 내용을 참고 및 요약하여 작성.



[그림 3-27] 프랑스 녹색국채 부문별 지출 배분

출처: 조용성·외(2021).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p.11

건물 부문은 프랑스 최종에너지 소비의 46.5%,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해 녹색국채를 통한 지출에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의 비중이 높다. 대부분 세금 공제의 형태로 지출되며, 에너지전환세액공제, 가정집 에너지 리노베이션, 저소득 저가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운영사에 대한 재산세 공제, 무이자 녹색 대출, 공공건물 에너지 리노베이션의 순으로 지출된다. 2019년 건물부문 녹색국채 지출의 80%를 차지한 에너지 전환 세액 공제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 리노베이션을 위한 가계소득세 공제 제도로 2017~2019년 간 총 353만 가구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4. 소결

2022년 국제 ESG 펀드시장의 투자는 크게 둔화되고 신규 ESG 펀드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홍지연 2023. p.1). 영국 HSBC는 조사를 통해 금융서비스 임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했음을 발표하면서, 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재고 급증, 2) ESG 그린워싱 우려, 3) 양질의 ESG 데이터 부족, 4) ESG 그린워싱 규제 혹은 정책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임팩트온, 2022b).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린워싱이나 ESG 데이터의 질 문제는 이미 각국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공시 규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ESG 관련 정보에 대한 표준화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개규정 강화는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ESG 관련 정보 중 노동인권과 같이 민감하고 기업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규제 법률로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즉, ESG와 관련하여 기업이 공개하여 정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발적 공개를 꺼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률로 규제하고자 한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주축인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인권규정 강화는 ESG가 점진적으로 인센티브를 위한 도구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름망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ESG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ESG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블랙록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1월 투자자와 기업 CEO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국가의 규제는 항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투자자의 요구는 기업에게는 국가의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이다. 투자자들과 시장의 요구는 정부가 규제정책의 당위성과 시행 동력을 손쉽게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선진 경제체계를 갖춘 유럽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탄소국경세와 인권 관련 법률 강화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일찌감치 탄소저감기술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온 유럽과 미국에게 이러한 ESG 규정 강화는 무역장벽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제공한다. 또

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과 같이 노동인권 강화가 통상무역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UFLPA 발효 이후 중국 신장 지역에 면화 재고가 33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022). 이는 텍사스에 대규모 면화 재배산업 보호와 온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은 기후변화와 사회적 가치이다. 사실 이는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정책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COVID-19 위기에서 각국의 정부들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와 탈원전을 강조했으며, 전기차 중심의 교통 개편 방안들도 쏟아졌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부족해진 가스 공급과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영국은 화력 발전소 가동을 늘렸고, 프랑스는 원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3월 현재 몇몇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폐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판매량이 급감했다(한국경제 2023). 그러나 환경적·사회적 가치는 ESG의 핵심이자 파생적 효과들에 가치를 부여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넷플릭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ESG와 관련해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은 현재 자신들이 장점을 ESG와 결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초기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다른 RNA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여러 나라에 공급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전 세계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며 비영어권 콘텐츠의 흥행으로 다양성이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넷플릭스는 이를 ESG와 강하게 결부시켜왔으며 잘 활용해왔다.

이와 같은 ESG 관련 정책과 사례의 특성들을 토대로 녹색건축에서 ESG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까? ESG 경영을 녹색건축 활동과 연계한 해외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 환경에서도 ESG는 몇 가지 기술이나 몇 가지 정책으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같은 기술 도입 외에도, 녹색채권이나 녹색대출, Planet 21,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접근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SG와 관련하여 건축 환경이 이전에 비해 무척 복잡해졌다.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인권, 안전, 하도급 관계, 국내외 ESG 정책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구들에 직면해 있다.



[그림 3-28] 2023년 건설산업 ESG 관련 주요 이슈

출처: 김영덕(2023). 최근 건설산업 ESG 동향과 2023년 전망.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CERIK ESG Insight Vol.1.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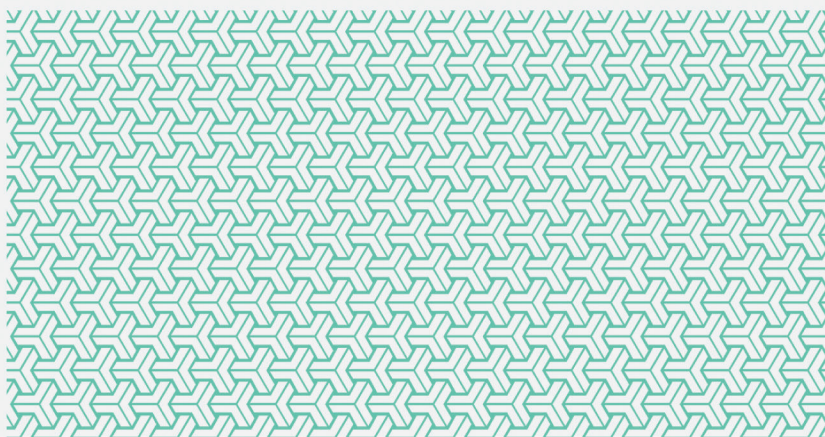
앞서 사례들을 검토해 볼 때, 녹색건축에서 ESG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ESG와 관련하여 건축 산업 주체들에게 원론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 ESG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정책이 한시적 인센티브보다는 건축시장에서 ESG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투자시장에서 ESG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투자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건축시장에서 ESG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건축과 일반건축의 경제적 효용 가치의 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측정하여 환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최근 ESG 정보 공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녹색건축이 ESG의 정보 구성의 하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량화 된 정보로 환산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적으로 표준 또는 공인된 형태일 필요가 있다.

즉, 녹색건축 산업에서 정책은 기업의 ESG 정보 개선과 건축 상품 가치의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여겨질수록 기업들은 건축 금융, 재료, 시공, 거래 등에서 ESG를 강조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다. 앞서 전기차 보조금 사례처럼, 녹색건축 지원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녹색건축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의 투명화, 객관화, 차등화 전략이 요구된다.

제4장 건물 부문 ESG 연계 촉진 방안



1. 개요
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3.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4.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5.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6.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7.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8. 소결

1. 개요

본 장에서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그린리모델링 인정서 발급 등 국가 공인 인정제 도입, 기업의 참여 촉진 위한 ESG 경영평가 연계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도의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③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 그린리모델링 시 건축물대장상 이력관리 및 인정서 발급 등 국가 공인 인정제 도입, 기업의 참여 촉진 위한 ESG 경영평가* 연계 추진

* 기업이 그린리모델링 통해 에너지·탄소배출량 절감 시 절감정도에 따라 ESG 반영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p.4.

[표 4-1] 녹색건축과 ESG 연계방안 도출의 연결성

| | | | | |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장 1절) | ESG 평가 가이드라인 (2장 2절) | ESG 경영 기업 지원 (2장 3절) | 관계자 인식조사 /전문가 인터뷰 (2장 4절) | |
| *녹색건축 활동의 그린리모델링 인정기준 완화 *에너지 DB의 관리 지원 | *K-ESG가이드 라인의 연계 *국토부 주도 가이드라인 | *ESG 컨설팅 *자금조달 연계 (녹색채권) *MOU 유도 | *녹색건축 활동 참여 유도 방안 | |
| 국외 선진국의 ESG 정책 사례 (3장 1절) | + | 국외 ESG 기업 활동 사례 (3장 2절) | + | ESG경영 녹색건축 활동 연계 해외사례 (3장 3절) |
| *녹색채권, 녹색대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접근법 | |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시스템 *건축시장에서 ESG 가치가 인정받는 거래 시스템 | | *계량화된 정보 및 데이터를 통한 발전 |
| 6가지 ESG와 녹색건축 연계 촉진 방안 제안 | | | | |
| ·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 | ·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 | |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 녹색건축 부문 ESG 연계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 녹색건축 ESG 연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연관성

| ESG 연계방안 | 건물소유자 | 설계자 | 시공자 | 사용자 | 공급망 |
|---------------------------------|-------|-----|-----|-----|-----|
| ①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 범위 확대 | ○ | △ | △ | ○ | - |
| ②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 ○ | ○ | ○ | - | ○ |
| ③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 ○ | △ | ○ | △ | ○ |
| ④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 ○ | △ | ○ | - | △ |
| ⑤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 ○ | △ | ○ | - | - |
| ⑥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 ○ | ○ | ○ | - | △ |

○: 연관관계 높음, △: 연관관계 보통, -: 연관관계 낮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3] 녹색건축 ESG 연계방안에 대한 ESG 부문 연계성

| ESG 연계방안 | E | S | G |
|---------------------------------|---|---|---|
| ①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 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 ○ | - | - |
| ②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 ○ | △ | △ |
| ③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 ○ | △ | △ |
| ④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 | △ | △ | △ |
| ⑤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 ○ | △ | △ |
| ⑥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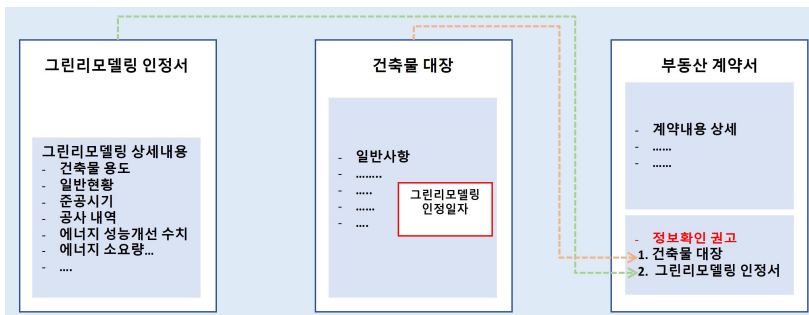
○: 연계관계 높음, △: 연계관계 보통, -: 연계관계 낮음

출처: 연구진 작성.

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민간 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인정’ 제도를 제안한다. 인정제도는 기존의 신축 위주의 녹색 인증,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 현 그린리모델링 인증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녹색건축분야 ESG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역할이다.

인정제의 목적은 국가공인 인정서 제공으로 그린리모델링 시행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하고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린리모델링 인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4-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의 활용 구상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린리모델링 인정제는 기존 인증제에 비해 인증 문턱이 낮아 ESG 경영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으로서 기업들의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정제 도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녹색경제활동의 일환이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인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녹색건축 특화 녹색경제활동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그린리모델링 인정서를 취득한 녹색건축 활동도 K-택소노미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정기준의 예시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1차 에너지 소요량 15% 감축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대효과로서 그린리모델링 인정취득을 통한 ESG 경영실적 강화 및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인정취득 기업은 이를 ESG 경영 실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신뢰도와 가치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실적의 공인은 기업의 녹색채권 조달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인증제보다 낮은 인증(인정) 기준, 에너지 성능 개선 이력 관리의 용이성 등으로 ESG 경영 기업들의 수요와 참여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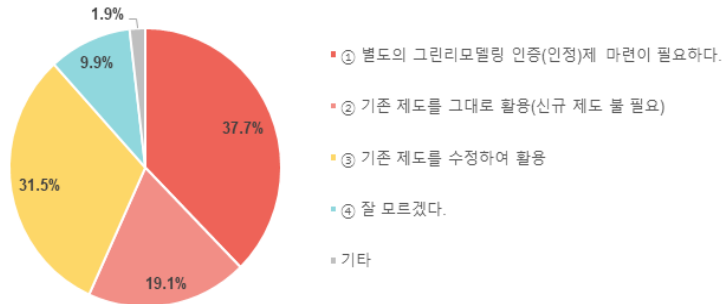
〈전후태 (포스코이엔씨 실장) 인터뷰〉

“친환경 건축물이 시장에서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주나 시행자 입장에서 건축물의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면 초기 건축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건축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으로 발주처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발적으로 LEED 인증 등을 받기도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조사〉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추진에 대해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37.6%가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별도의 인증(인정)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1.5%가 기존 제도를 수정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약 19.1%로 나타났으며, 9.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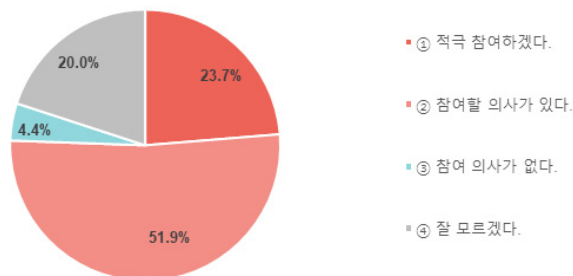


[그림 4-3]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추진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조사〉

ESG 경영과 관련된 녹색건축 활동을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취득 활동까지 확대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5.9%가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반수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51.2%)고 응답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24.7%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9.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3% 정도만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4] 녹색건축 활동을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취득 활동까지 확대할 시 참여의사

출처: 연구진 작성.

3.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건축 분야의 ESG 확산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메인으로 하는 국토부의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 활동에 특화된 ESG 가이드라인에 다음의 5가지 방안을 담을 것을 제안한다.

- (진단 및 방향 설정) 녹색건축 활용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정보 제공 지원
기업들의 현 ESG 경영 수준, 녹색건축 활용 가능성 및 주요 성과 등을 진단하고 녹색건축 활동 활용을 위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 ESG 경영 수단으로서 녹색건축 활동 연계 우수사례를 참고자료로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녹색건축 연계 가능성 모색) ESG 경영에 활용 가능한 녹색건축 활동 요소 및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기업 규모(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녹색건축 활동 요소와 ESG 공시·평가 관련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녹색건축 활동이 기업 규모(유형)별로 특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한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책 현황과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인정제를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 인정 등 녹색건축 활동으로서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 (평가항목 간 상호 연계) 녹색건축 활동이 ESG 경영 전반에 활용되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녹색건축 활동이 '환경(E)' 부문과 함께 '사회(S)', '지배구조(G)' 항목까지 확장(상호 연계)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모색한다.

- (기업 ESG 평가 연계)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이 ESG 평가와 연계되기 위한 방안 마련
그린리모델링 인정취득 행위가 ESG 경영실적이 되도록 조치하여 녹색채권 조달 편의까지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적용 시 ESG 평점 가산제를 마련하여 K-ESG 성과점점 진단항목에서 그린리모델링을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 K-ESG 가이드라인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에서 그린리모델링과의 연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성과점점 진단항목의 예시로 메뉴판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제시한다.

기대효과로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인식과 경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민간)의 그린모델링 수요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임현우 (건축대학교 교수) 인터뷰〉

“1차적으로 녹색건축 적용에 따른 탄소저감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틀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틀에 의한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세제 혜택,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처럼 1년간의 에너지사용량에 기반을 둔 실제 탄소 저감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적용되어 또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건물 리트로핏, 커미셔닝 비용 지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건축활동이 ESG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은 ESG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녹색건축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것이다.”

〈정은영 (삼성물산 그룹장) 인터뷰〉

“법인 발주자의 건물은 녹색건축의무화를 하고 설계를 통한 ZEB, 녹색인증 등을 취득하고, 준공 후 3~5년간 운영에너지를 가지고 확정인증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점수는 설계는 설계사, 시공은 시공사, 운영은 운영사와 공유하여 각사의 ESG 경영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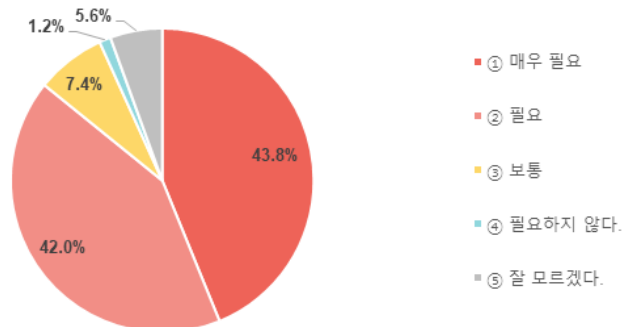
〈엄태운 (한일엠이씨 이사) 인터뷰〉

“다만, 현재의 제도는 신축(증개축) 이행 연도만 ESG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 대한 평가기준 추가 및 개선 등이 필요하다.”

출처: 연구진 작성.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조사〉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활동에 관련한 ESG 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약 85.8%(필요하다 43.8%, 매우 필요하다 42.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7.4%였으며 잘 모르겠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그림 4-5] 녹색건축 활동 관련 ESG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4.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ESG의 영향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대응을 위한 준비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한 시범사업으로 ESG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부 관련 녹색건축센터 또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협업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ESG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한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김재문 (삼우CM건축 이사) 인터뷰〉

“대기업은 기업 주도로 ESG 경영을 지속 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이하는 기업은 ESG 경영을 알아보고,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모범 사례 발굴, 교육 지원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동현 (성균관대학교 관리팀 과장) 인터뷰〉

“기업(기관)과 설계자, 시공사, 건물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녹색건축 활동과 건물 생애 주기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와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통해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아울러 ESG 기업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성능과 적용 친환경 기술의 결정, 적용·확대를 위한 성능평가 및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그린리모델링 설계 모듈의 보급을 통한 ESG 기업 활동과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개별 MOU 협력기업이 맞춤형으로 그린리모델링 적용을 위한 도면 검토 후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을 통해 ESG의 적극 도입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앞서 중소·중견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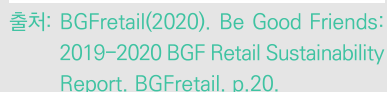
시범사업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으로 대변되는 취약계층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ESG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정부의 일부 재원지원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ESG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시범사업이 계획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2%가 긍정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53.7%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12.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7.4%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ESG 전략으로 친환경 편의점 활용 중인 주요 프랜차이즈 사례〉

-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ESG 전략) ESG 경영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편의점 계획 수록
- (BGF 리테일) 그린스토어를 통해 매장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자연 냉매 냉동고 및 설비 기, 공기청정 시스템 등 적용으로 전기 사용량 최대 17%까지 감소
- (GS 리테일)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 점포의 냉난방, 간판 등의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에너지 절감방안 도입
- 시사점: 단열 유리 설치, 에너지 절감 전기 설비, 공기청정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 등의 요소들은 그린리모델링 세부기술과 연계 가능



출처: GSretail(2020). 2020 GS리테일 지
속가능 경영보고서. GSretail, p.23.

5.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

ESG 추진은 녹색건축 활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마중물 같은 강한 지원책이 있으면 참여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ESG 경영은 기업에게는 녹색건축 활동보다 더욱 강력한 환경부하 저감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만약 녹색건축 활동과 관련된 제도에서 ESG 경영과 연계하려고 한다면 기업의 ESG 투자에 대한 적극적 금융시스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녹색건축활동 연계 ESG 우수기업에 녹색채권을 활용하여 이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금융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ESG 지원강화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기업 당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한도에서 에너지 감축 달성 시 금리 등을 우대하는 등 녹색건축활동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조정현 (동부건설 차장) 인터뷰〉

“ESG 추진 및 녹색건축 활동 참여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일 지라도 현재의 국내 경기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군이 포진되어 있는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SG 추진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며 녹색채권 또한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혜택을 부여하고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6.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녹색건축 연계 ESG 활동의 평가측정에 있어 ESG 경영 중 'E'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직접/간접 구분),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직접/간접 구분, scope1,2,3), 사용한 모든 원재료의 양, 모든 재활용의 양 등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녹색건축 활동으로 인한 탄소절감에 대한 기여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여가 모니터링 되어 데이터 기반의 성과점점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ESG 경영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 및 아예 데이터로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한 데이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D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본사 및 사업장 주소와 건물에너지 데이터를 매칭하여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 실제 ESG경영 평가 보고서에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신성은 외 2022, pp.450-451).



[그림 4-7] ESG의 E부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항목 데이터 활용 예시

출처: 신성은 외(2022). 중소기업 ESG 지원강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DB 적용 시범연구-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2). pp.450-451.

《신지웅 (이에이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인터뷰》

“ESG 경영 추진을 하다보면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KPI를 설정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ESG 경영 중 ‘E’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사용량(직접/간접 구분),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직접/간접 구분, scope1,2,3), 사용한 모든 원재료의 양, 모든 재할용의 양 등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데이터로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은 전담자도 있어야 하겠지만 별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비용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을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주윤 (ERM Korea 이사) 인터뷰》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ZEB 및 녹색건축 인증,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의 저탄소배출을 위한 시작단계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작단계로 생각하고 그러한 인증들이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탄소절감에 대한 기여를 하는지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여 데이터기반의 성과를 트래킹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연구진 작성.

아울러 3자 검증 및 평가주체에 있어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검증기관은 현재 13개 기관이 전부로, 객관적인 데이터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검증기관 확대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태윤 (한일엠이씨 이사) 인터뷰》

“또한, ESG 경영의 핵심은 목표설정-이행-분석-3자검증-평가로 이루어지는 체계에서, 현재 3자 검증주체, 평가 주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검증기관은 현재 13개 기관이 전부로, ESG 경영 활성화가 되더라도 검증기관 대응이 불가능할 듯하다. 검증기관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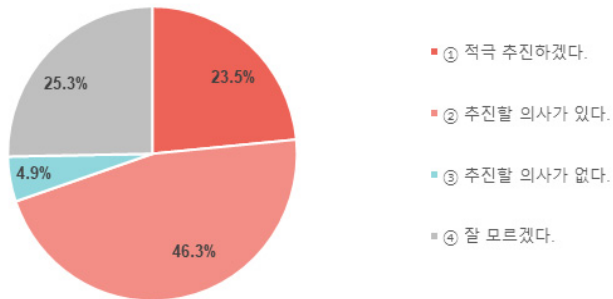
7.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

정부-기업간, 기업-기업간 전략적 업무협약 추진으로 ESG 기업 활동을 녹색건축 확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기업간 MOU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ESG 경영부문을 검토하고, 지속적 활용에 대한 협약을 추진한다. 사업장 개소수가 많아 녹색건축 확산에 유용한 기업을 협약대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녹색건축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MOU를 유도할 수 있다. ESG 기업의 녹색건축 사업 증대는 녹색건축 관련 론을 운용 중인 금융사의 ESG 경영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대효과로서 실질적인 녹색건축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접근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한 기존 산업의 에너지 절감 지원과 차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조사〉

정부가 ESG 선도기업과의 MOU를 추진한다면 MOU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5%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6.3%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여 전체의 69.8%가 MOU 체결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3%,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그림 4-8] 정부와 ESG 선도기업과의 MOU 추진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8. 소결

본 장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을 고찰하였으며, 도출된 연계방안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리모델링 인정제는 기존의 녹색건축 인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K-택소노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건축 활동, 특히 리모델링 인정 기준에 대하여 기존에 있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의 완화 부문과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토부 녹색건축과를 주도로 그린리모델링 인정제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인정 범위 기준 검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부 주도의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 활동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으며 민간기업의 녹색건축 활동을 확산하기에 시의적절하다. 이에 녹색건축 활동을 특화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은 시장 확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보완·발전 시, 녹색건축 활동이 사례 등으로 포함되면 본 분야의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산업부와와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다만, 녹색건축 활동뿐만 아니라 국토부 전체의 건설 산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건물의 시공·관리·전 과정에서의 ESG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의 여러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조율된 ESG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향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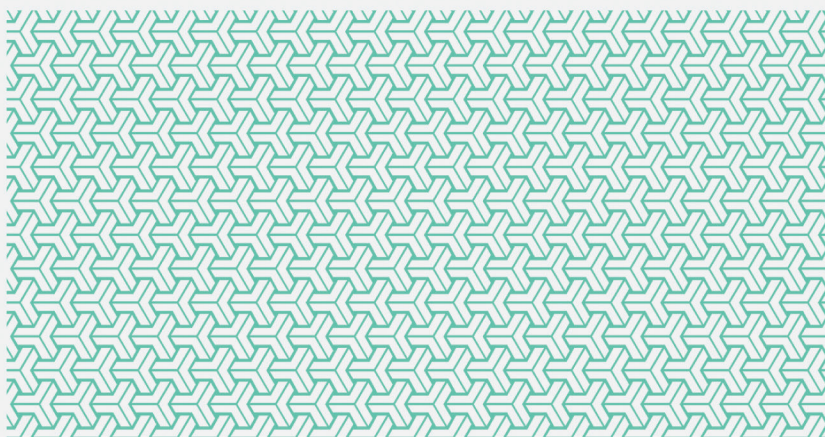
셋째, 민간기업은 녹색건축 활동에 대해서 ESG와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부, KOTRA,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민간건설에 대한 컨설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국토부 또한 녹색건축 활동, 특히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일반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소비 절감 측면의 그린리모델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축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 기업에 가이드나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채권 등에 대한 이자 혜택 등 금융지원과 연계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녹색건축 활동이 ESG와 연계되어 기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간접적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면서, 다수의 3차 검증기관과의 협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경영 활동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상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ESG 평가 점수 향상에 의한 투자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선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MOU나 선도기업에 대한 혜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각 촉진 방안에 대한 건설업계 종사자 인식 현황 조사 결과도 이러한 방안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먼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활동에 관련한 ESG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5.8%에 해당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ESG 관련 지원이나 제도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녹색건축 활동에 대한 건설 부문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녹색건축 활동과 ESG가 연계되기 위한 현안은 무엇인가?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활동은 ESG의 'E'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긍정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ESG에 대해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도나 녹색건축 활동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가이드나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을 활용한 ESG 경영 확대 방안 마련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 연계를 위한 건설 부문의 민간 수요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부문 민간기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14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ESG 경영의 필요성과 녹색건축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녹색건축과 ESG 연계방안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녹색건축 활동과 ESG를 연결하기 위한 민간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정부의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및 금융 지원 연계,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ESG 경영과 녹색건축 활동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섯 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책은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및 녹색건축 활동 인정범위 확대,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 ESG 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녹색건축 연계 ESG 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 녹색건축 활동 특화 ESG 경영 기업과의 MOU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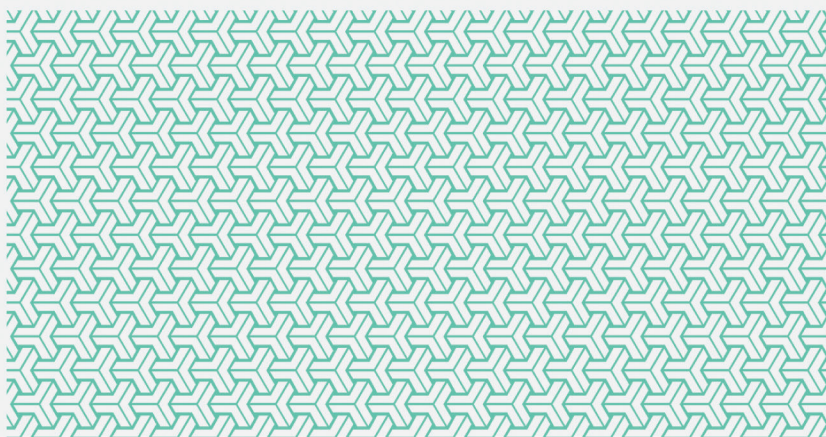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 분석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녹색건축 활동과 ESG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진행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설문조사에 있어 건설부문 종사자에 한정하여 설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인식조사에 대한 통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설정하지 못하였고 접근가능한 설문 대상에 대하여만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건물 자산을 소유한 기업들도 녹색건축 활동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건설부문 민간기업에만 한정하여 그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에 있어서는 그 수가 한정되어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 및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녹색건축에 한정하여 연계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전체적인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진행되는 이슈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K-택소노미의 녹색건축 활동의 확대적 정립 방안, 녹색건축 특화 ESG 가이드라인의 수립, 녹색건축 활동 ESG 컨설팅 및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 연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세부 설계, 데이터 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협력적 연구로 확대되어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녹색건축을 통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에의 기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SG는 민간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협력적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시행 2022.12) v1.0. pp.1-259.

「Corporat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시행 2021.06.14.)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시행 2023.02.23.) COM/2022/71 final. pp. 1-69.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시행 2021.06.08.)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시행 2021.01.20.)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시행 2023.01.01.)

관계부처 합동(2021). 「K-ESG 가이드라인」(시행 2021.12.01.) v1.0. pp.1-176.

「Modern Slavery Act 2015」(시행 2015.07.31.)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시행 2022.09.14.) COM(2022)453. pp. 1-60.

공경신(2020). 미국의 ESG 규제 동향과 최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18호. pp.1-4.

공경신(2022). 미국 SEC의 ESG 펀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Name rule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2-16호. pp.1-4.

곽미성(2021). 프랑스 ESG 정책동향 및 기업 대응 사례.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9658 (접속일: 2023.1.04.)

관계부처 합동(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포함). 관계부처 합동. pp.1-24.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pp. 1-13.

기계설비신문(2022). [2022 기계설비 컨퍼런스] "기계설비, ESG 시대 견인하는 주체돼야".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2> (접속일: 2023.1.04.)

김영덕(2023). 최근 건설산업 ESG 동향과 2023년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ESG Insight Vol.1. pp.1-19.

김현석(2022). ESG에 따른 환경성과평가가 기업의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31(2), pp.121-160.

김호석(2021). ESG 관련 국내의 동향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n.d.). 세키스이하우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003&cid=43167&categoryId=43167> (접속일: 2023.10.03.)

마켓인사이트(202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원년 대응책 ①[삼정KPMG CFO Lounge].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301181589r> (접속일: 2023.10.03.)

박성남·문보람·권혜인·김성준(202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제2015-41호

박지원(2022).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2(20). pp.1-17.

빅카인즈(n.d.). 뉴스검색 · 분석.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21). 2021 외국의 통상환경.

신성은·정화미·김태연(2022). 중소기업 ESG 지원강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DB 적용 시범 연구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2). pp.450-451.

연합뉴스(2022). 미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산장 면화 재고 산터미.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472DD967B9733637546C936736CE4A4.Hyper?no=1823972 (접속일: 2023.10.03.)

우수진·이상윤(2022).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절감 효과분석 -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 생태환경건축학회지. 22(5). pp. 19-26.

이옥수(2020). 한국형 녹색금융과 ESG 금융의 재정의. Deloitte Insights. Climate & Sustainability 특집호. pp.94-103.

이종성·김태호·엄기태·황인태·김법전(2022).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전략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제2015-012호

이지경제(2021). ESG경영이 뭐길래④·금융계 주도 '영국'.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61> (접속일: 2023.10.03.)

이코노미리뷰(2021). [E]에 빠진 건설업③ ESG 경영, 편식 지양해야.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750> (접속일: 2023.03.21.)

임팩트온(2022a). 미국의 ESG 찬반 싸움, 공적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위험?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7> (접속일: 2023.10.03.)

임팩트온(2022b). 우크라이나 전쟁 · 투자자들의 우울증이 ESG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7> (접속일: 2023.10.03.)

임형석(2022).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2-2호.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2021). ESG 사례 ③ :: 유통공룡 월마트(Walmart)가 지구와 상생하는 법.
<https://jejuzip2021.tistory.com/199> (접속일: 2023.10.03.)

조용성·박우영·박찬국·조주현·남경식·김해지·한지혜·김우식·김유정(2021).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pp.1-35.

최유경(2022). E.S.G. 법제 기초연구(Ⅰ) - 미국 E.S.G. 공시 간소화 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연구 22-19-1. pp.1-143.

칸(KHARN)(2022). 건물부문 탄소중립 GR 성과 '팔뚝'.
<http://www.kharn.kr/mobile/article.html?no=21109> (접속일: 2023.12.17.)

태평양면광기(2023). [이슈리포트] 사례 속 지속가능발전 ③ 힐튼의 '묵적있는 여행'과 'ESG 경영'.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ptokorea&logNo=222420691946&categoryNo=27&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접속일: 2023.2.14.)

한국경제(2023). 전기차 대세라더니...기아 EV6 1월 한 대도 안 팔린 이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176207g> (접속일: 2023.10.03.)

한상범·권세훈·임상균(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1-01호. pp.1-201.

해양수산부(2023). 해양수산 ESG 전략 수립 연구. 과업지시서.

홍지연(2023). 글로벌 ESG펀드 현황 및 관련 규제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3-02호. pp.1-5.

환경부(2021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환경부(2021b).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811·812·813·814·815·816·817·818·819·820·821·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833·834·835·836·837·838·839·840·841·842·843·844·845·846·847·848·849·850·851·852·853·854·855·856·857·858·859·860·861·862·863·864·865·866·867·868·869·870·871·872·873·874·875·876·877·878·879·880·881·882·883·884·885·886·887·888·889·890·891·892·893·894·895·896·897·898·899·900·901·902·903·904·905·906·907·908·909·910·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922·923·924·925·926·927·928·929·930·931·932·933·934·935·936·937·938·939·940·941·942·943·944·945·946·947·948·949·950·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961·962·963·964·965·966·967·968·969·970·971·972·973·974·975·976·977·978·979·980·981·982·983·984·985·986·987·988·989·990·991·992·993·994·995·996·997·998·999·1000.

환경부(202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환경부 외(2022).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환경부(2023). 환경분야 ESG 지원사업 안내서. pp. 1-82.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3). CERIK ESG Insight. Vol.1.

Accor(2021). 2021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ccor. pp.1-432.

Accor(2023a). ALL Heartist Fund.
<https://group.accor.com/en/group/our-commitments/all-heartist-fund> (접속일: 2023.1.10.)

Accor(2023b). Your Perfect Stay at the Best Price. <https://all.accor.com/> (접속일: 2023.01.10.)

Accor(2023c) Acting for People and the Planet.
<https://group.accor.com/en/commitment/planet-21/building> (접속일: 2023.1.10.)

AstraZeneca(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1. AstraZeneca. pp.1-35.

AstraZeneca(2022). Sustainability Data Summary 2022. AstraZeneca. pp.1-18.

AZEK(2023a). The Azek Story. <https://azekco.com/about-us/the-azek-story> (접속일: 2023.1.11.)

AZEK(2023b).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https://investors.azekco.com/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 (접속일: 2023.2.23.)

BCA(2021a). Green Building Masterplans.
<https://www1.bca.gov.sg/buildsg/sustainability/green-building-masterplans> (접속일: 2023.1.6.)

BCA(2021b). Built Environment Transformation Gross Floor Area Incentive Scheme.
<https://www1.bca.gov.sg/buildsg/sustainability/green-mark-incentive-schemes/built-environment-transformation-gross-floor-area-incentive-scheme> (접속일: 2023.1.6.)

BGFretail(2020). Be Good Friends: 2019-2020 BGF Retail Sustainability Report. BGFretail. pp.1-34.

CNBC(2020). Walmart has a grand plan to help suppliers club together to buy green energy.
<https://www.cnbc.com/2020/10/23/walmart-wants-suppliers-to-buy-renewable-energy-collectively.html> (접속일: 2023.1.5)

Delta(2022) Green Buildings. https://esg.deltaww.com/en/csr_GreenBuilding (접속일: 2023.1.5.)

ESG 경제(2022). EU,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ESG 공시 기준 공표...ISSB와 차별화.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 (접속일: 2023.10.03.)

ESG 공급망 지원센터. K-ESG 가이드라인. https://www.esgsupport.or.kr/sub_about/guideline.php
 (접속일: 2023.10.03.)

European Commission(2018).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European Commission.
 COM(2018) 97 final. pp. 1-19.

European Commission(2023).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https://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접속일: 2023.3.21.)

flickr(2023). Walmart wind turbine. <https://www.flickr.com/photos/walmartcorporate/5258282721/sizes/z/in/photostream/> (접속일: 2023.1.10.)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023). Consolidated Set of the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pp. 1-87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pp. 1-31.

GRI(2022). Four-in-five largest global companies report with GRI.
<https://www.globalreporting.org/news/news-center/four-in-five-largest-global-companies-report-with-gri> (접속일: 2023.3.13.)

GSretail(2020). 2020 GS리테일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GSretail. pp.1-51.

Hilton(2023). Environmental Impact. <https://esg.hilton.com/environment/#pavingthewaytonetzero>
 (접속일: 2023.1.10.)

ICMA(2021). 사회적 채권 원칙: 녹색채권 발행 위한 자발적 절차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ICMA. pp.1-11.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2021). 2021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10월 26일자 보도자료.

KOTRA(2022).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 규제 대응 핸드북. KOTRA 통상협력팀. 22-130호.

Kotra해외시장뉴스(2021). 녹색경제 주도를 꿈꾸는 영국의 ESG 정책과 기업경영.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89905 (접속일: 2023.10.03.)

Kotra해외시장뉴스(2011). 스페인 저가 마케팅, 선택이 아닌 필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04613
 (접속일: 2023.1.10.)

Netflix(2021).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eport 202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Report. Netflix. pp.1-42.

Netflix(2023). Sustainability. <https://about.netflix.com/ko/sustainability> (접속일: 2023.03.13.)

Nordea(2021). ESG analyst: Green buildings is the way of the future.
<https://www.nordea.com/en/news/esg-analyst-green-buildings-is-the-way-of-the-future>
 (접속일: 2023.1.5.)

pv magazine(2021). Walmart adds 6.5 MW of rooftop and canopy parking solar to California stores.
<https://www.pv-magazine.com/2021/04/19/walmart-adds-6-5-mw-of-rooftop-and-canopy-parking-solar-to-california-stores/> (접속일: 2023.1.5.)

REBRICKS(2021). The Process Infographic. <https://rebricks.id/what-we-do> (접속일: 202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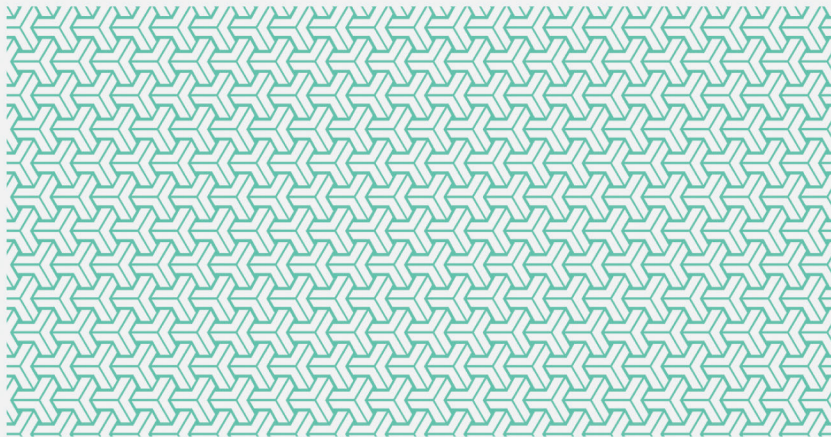
SEKISUI HOUSE(2022). Value Report 2022. SEKISUI HOUSE. pp.1-241.

TCFD(2022).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2 Status Report. pp.1-145.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y Strategy(2022). Mandatory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by publicly quoted companies, large private companies and LLPs. pp. 1-23.

Whitehouse, L(2006). 영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과 관행. 국제노동브리프. 4(4). pp.5-11.

How to Link ESG in the Building Sector to Promote Green Buildings



Park, Sungnam

Moon, Boram

Choi, Ga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trategies for integrating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into the building sector, with a focus on green building diffusion,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s of private enterprises.

Firstly, what ar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green building activities and ESG within the Korean green classification system? Green building activities included in the Korean green classification system have the potential to positively impact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E' (Environmental) aspect of ESG for both new and existing buildings. However, private enterpris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understanding ESG, and they may not fully realize the potential for alignment with green building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guidance and support policies, so there is a need for central government initiatives to promote ESG management through green building for private enterprises.

Secondly, what is the private sector demand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r integrating ESG management and green building activitie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among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terviews with 14 experts, revealing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highly value the necessity of ESG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alignment with green building activities. Additionally, there is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arious green building and ESG integration initiatives. Therefore, there is a high level of private sector demand for connecting green building activities with ESG,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government evaluation guidelines, financial support, education, and consulting.

Thirdly, what are the proposed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between ESG management and green building activities? Through brainstorming by the research team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six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the recognition of green remodeling standards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recognized green building activities,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ESG guidelines for green building activities, consulting support for green building activity-focused ESG, financial support for ESG-driven companies, support for data management related to green building-linked ESG, and the promotion of MO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green building activity-focused ESG management compani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relevance of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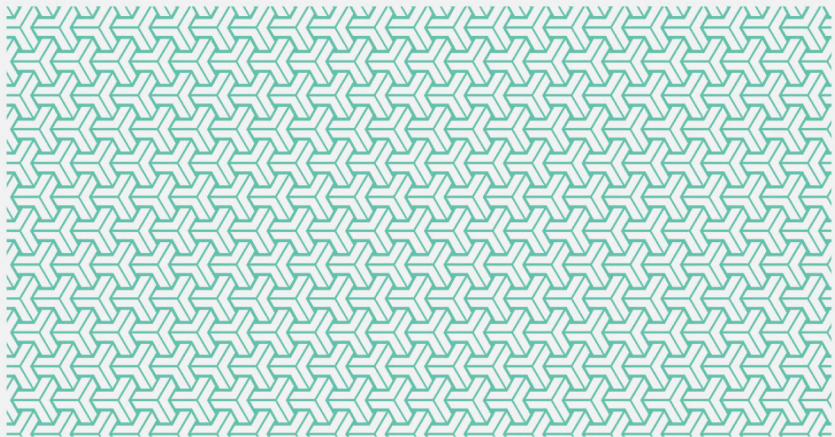
management in private enterprises. It has sought to explore strategies for the integration between green building activities and ESG through issue analysis and expert consultations.

If the proposed strategies for the integration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within the building sector for the expansion of green buildings are progressively implemented in this study,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tributions to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rough green buildings will spread. ES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sponsible management in private enterprises. Therefore, we hope that the collaborative efforts emphasized in this study for the dissemination of green buildings in the private sector can add value to our society.

Keywords :

ESG, K-Taxonomy, Green Buildings, Green Remodeling

부록



1. 민간건설산업 ESG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1. 민간건설산업 ESG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최근 산업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 건설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1) 귀사의 주 업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종합건설업(도급순위 10위 이내) ()
- ② 종합건설업(도급순위 50위 이내) ()
- ③ 종합건설업(도급순위 50위~100위) ()
- ④ 건설용역업(건축설계) ()
- ⑤ 건설용역업(구조설계) ()
- ⑥ 건설용역업(감리) ()
- ⑦ 건설용역업(친환경컨설팅) ()
- ⑧ 건자재 생산/판매 ()
- ⑨ 연구개발 ()

문 2) 귀사의 본사 소재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 () ◆ 경기 () ◆ 인천 () ◆ 강원 () ◆ 충남 ()
- ◆ 대전/ () ◆ 충북 () ◆ 대구 () ◆ 경북 () ◆ 전북 ()
- ◆ 세종 () ◆ 경남/ () ◆ 부산 () ◆ 제주 ()
- ◆ 광주 () ◆ 전남 () ◆ 울산 ()

문 3) 귀사의 규모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0인 이하
- ② 10인 이상 ~ 30인 이하
- ③ 30인 이상 ~ 50인 이하
- ④ 50인 이상 ~ 100인 이하
- ⑤ 100인 이상

■ ESG 경영의 중요성, 인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ESG는 Environmental(환경)의 ‘E’, Social(사회)의 ‘S’ 그리고 Governance(지배구조)의 ‘G’의 약자로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경영 및 산업 차원의 패러다임이자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며, 구체적인 실천 및 활동임.
- 기업 차원에서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서, ESG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 전략 이행의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문 4) 귀사의 ESG 경영에 관한 인식 정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 중에 적합한 내용을 1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ESG 경영에 전혀 알지 못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 ② ESG 경영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 ③ ESG 경영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회사차원의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④ 회사 차원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⑤ 이미 ESG 경영에 대한 이미 대응/추진하고 있다.

문 5) ESG 경영에 관해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① 거래처로부터 ESG 경영에의 대응을 요청받았다(받고 있다).
- ② 정부로부터 ESG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 ③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 ④ 업계 단체 및 지원기관(NGO/NPO)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 ⑤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 ⑥ 자사의 교육, 홍보 등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 받았다.
- ⑦ 기 타 ()

문 6) ESG 경영에 대한 귀사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 ① 주로 CSR* 담당에 국한되어 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② 주로 경영진에 국한되어 있다.
- ③ 중간관리자에게 정착되어 있다.
- ④ 사원 전체에게 정착되어 있다.
- ⑤ 자회사 등 stakeholder에 정착되어 있다.
- ⑥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 ⑦ 잘 모르겠다.

■ 건설산업 ESG 경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 건설산업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필요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 ②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 ③ 아직 건설산업에는 불필요하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8) 위 7번 항목에 대해 ①~②에 응답한 경우로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발주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서
- ②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 ③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해서
- ④ 수주 증가를 위해
- 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 ⑥ 투자 관리를 위해
- ⑦ 기타 ()

문 9) 위 7번 항목에 대해 ③~④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ESG 경영이 회사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③ (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ESG 경영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해서
- ④ 회사 특성상 ESG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 ⑤ 기타 ()

■ 현재 건설산업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단계에서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0) 현재 국내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추진 레벨(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 5 | 4 | 3 | 2 | 1 |
|----------|-------|----|-------|----------|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보통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

문 11) 국내 건설산업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부재
- ② ESG 경영을 추진할 CEO(최고의사결정권자)의 추진 의지 부재

- ③ ESG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사내 ESG 전문가의 부재
- ⑤ ESG 경영 추진에 따른 가시적 효과 불 분명
- ⑥ ESG 경영 추진에 요구되는 비용 부담
- ⑦ ESG 경영을 위한 벤치마크 사례 부족
- ⑧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 ⑨ 기타 ()

■ 향후 ESG의 분야별 중요성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12) ESG 평가지표 내용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중에서 현재 ESG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 ② 사회 ③ 지배구조

문 13) 위 12번과 관련하여 ESG 평가에서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평가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환경 ② 사회 ③ 지배구조

■ 향후 건설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14) 귀사의 ESG 경영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 ①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 ② 자체적인 ESG 평가기준 마련
- ③ 협력업체 관리(ESG 평가 지표 자료 제공 등)
- ④ ESG 중점과제 선정 및 이행
- ⑤ ESG 데이터 관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⑥ 조직 내 ESG 관련 교육 시행
- ⑦ 주기적인 ESG 경영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⑧ 별도의 준비나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음.
- ⑨ 잘 모르겠음.
- ⑩ 기타 ()

문 15) 그렇다면 향후 건설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가능)

- ① 건설업 특성에 맞는 ESG 평가 기준의 마련
- ②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세제혜택, 기술지원 등) 체계의 마련
- ③ 공공공사 입찰 시 ESG 평가 점수의 반영
- ④ ESG 전문가 양성을 지원
- ⑤ ESG 교육프로그램 지원
- ⑥ 기타 ()

문 16)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활동에 관련한 ESG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문 17) 국토부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의 중요한 전략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증(인정)제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① 별도의 그린리모델링 인증(인정)제 마련이 필요하다.
- ② 기존 제도를 그대로 활용(신규 제도 불 필요)
- ③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활용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문 18) 위 문 16과 관련하여, ESG 관련 녹색건축 활동으로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인정제(인증제) 인정 취득 활동까지 확대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③ 참여 의사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문 19) 정부 차원의 ESG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시범사업이 계획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③ 참여 의사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문 20) 정부가 ESG 선도기업과의 MOU를 추진한다면 MOU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있다. ③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